백두산

김정일장군님은
통일혁명의 영도자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21호 - 주체91(2002)년 5월 5일 백두산 편집부

≪1회 청년민족축전≫ 美쳐보자!

지난 동계올림픽에서 김동성 선수가 어이없게 금메달을 박탈당하는 일이 발생한 후, 온라인상에서 미국제품 불매운동, F-15K 구입반대 등을 벌여왔던 네티즌들이 오프라인에서 뭉쳤다.

대한민국 네티즌들이 중심으로 준비한 ≪1회 청년민족축전≫이 3일 경희대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경희대 정문 앞 ≪發光 STAGE≫를 비롯한 다채로운 전시회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특히, 네티즌들의 불매운동 수기공모전, 국산품 애용하기 선운운동, 올림픽 패권주의, ≪美國≫의 ≪美≫자를 ≪米≫자로 바꾸기 캠페인, F-15K 구입반대 서명운동 등 미국과 관련된 다양한 서명운동 및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경희대 교정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있게 지켜보며 참가하는 모습도 보였다.

또한 오후 4시경부터 시작된 ≪發光 STAGE≫에는 ≪좋아좋아≫, ≪뷰티풀걸≫ 등을 노래했던 일기예보의 ≪나들≫이 결성한 ≪Decent Fellas≫를 비롯해, 지랄발광, 블랙테트라, 주리랑, 서울예대 락동아리 등이 출연해 열기를 높여주었다.

이번 행사의 본행사인 ≪美쳐보자≫ 콘서트는 경희대 노천극장에서 오후 7시경부터 시작되었다. 김정환 씨의 사회로 시작된 미쳐보자 콘서트는 ≪Return to Zero≫로 알려진 신인가수 우미진과 지난 해 한국을 대표해, KOREA JAPAN ROCK FESTIVAL에 참여한 바 있는 LAZYBONE의 노래로 열기를 점차 더해갔다.

특히 익살과 풍자로 잘알려진, 민중각설이 기만서가 나와 인터넷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엽기DJ≫를 성대모사할 때는 노천극장을 가득 메운 2만여명의 관객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후, 비갠후(Began...Who?)와 ≪너에게 난, 나에서 넌≫으로 널리 알려진 얼터네이티즈 락을 구사하는 ≪자전거 탄 풍경≫이 출연하였으며, 날카로운 사회풀자로 화제가 되고 있는 펑크밴드 TACOPY가 열띤 무대를 준비하였다.

이후 경희대 응원단의 응원전과 서총련 노래패 조국과 청춘, ≪기특한 과자≫와 ≪또라이 부시≫등을 부른 우리나라, ≪Fucking U.S.A≫를 부른 박성환 등이 출연하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그외 ≪Fucking U.S.A≫를 작곡한 윤민석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출연하여 행사에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총련 출범식에 참가하는 한총련 학생들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이전에는 운동권의 전유물로만 여겨진 ≪반미운동≫이 네티즌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운동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너무 재미있었다. 반미를 이야기하면 구호를 외치고 팔뚝질을 하는 등 과격한 행동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 다만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오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이야기하며 이번 행사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대한민국 네티즌이 주최하고, 통일연대, F15 내정철회 공동행동이 후원하고, 민족21, 딴지일보, 인터넷 방송국 청춘 등이 협찬하는 이번 행사는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인터넷 방송국 청춘과 대학 인터넷신문 ≪유뉴스≫에서 실시간으로 인터넷중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4일 오후 2시에는 명동 한빛은행앞 사거리에서 ≪發光 STAGE II≫가 열릴 예정이다.

배태호기자
오마이뉴스 2002/05/04

2 조국광복회 창립 66돌
- 조국광복회
- 민족대단결, 그 뿌리
-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하자
- 조국통일과 민족통일전선

4 종합
- 조국통일3대원칙발표 평양시보고회
- 조국통일3대원칙은 조국통일의 초석
- 금강산상봉행사와 입산료는 상관 없다
- 일본 과거청산 요구 아시아지역토론회

5 노작
- 조국통일의 3대 원칙에 대하여 (2)

7 세기와 더불어
7장 5절 백마에 대한 추억 (1)

9 칭송
- 또다시 노래하노라 우리의 붉은기 (2)
- **김정일**각하는 희세의 영장이시다

10 김일성대학방송강좌
- 깊은 사색을 천품으로 지니고

11 한국민족민주전선
- 일본의 역사왜곡책동 짓부수자
- 사회각계에서 ≪주적론≫ 삭제를 요구
- 통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용납할수 없는 사대굴종행위
- 외교통상부장관의 망발을 반박한다

13 투쟁보도
- F-X사업 규탄 만민공동회
- F-15K와 미국산 무기도입의 문제
- 확실하게 미!쳐보자
- 故윤금이 10주 추모극 공연
- 노동법 개악에 쐐기를 박는 투쟁 필요

15 운동강좌
- 미국의 2002년도 국가정보보고서와 한(조선)반도 정세변화의 전망 (2)

≪한민전≫, 김일성주석 탄생 90돐 기념행사에 관한 공보

서울에서의 ≪구국의 소리≫방송에 의하면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 중앙위원회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 기념행사에 관한 공보를 2일 발표하였다.

공보에 의하면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을 맞으며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 기념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4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에 여러가지 기념행사들을 진행하였다.

≪한민전≫중앙위원회와 각 도, 시위원회들, 각급 조직들과 각계 애국운동단체들에서는 14일 태양절기념 보고회들을 진행하였다.

보고회들에서는 **김정일**장군님께 드리는 편지와 맹세문들을 채택하였다.

한편 기념행사기간에 태양절기념 강연회와 불멸의 혁명업적에 관한 연구토론회,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연구발표회, 비데오시청,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저작 및 사진전시회, 충성의 노래모임 등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실정에 맞게 조직진행하였다.

애국운동단체들은 각계 민중속에 주석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벌렸다.

4.15동지회, 백두회, 태양회, 통일애국청년회 등 애국운동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을 기원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흠모의 정을 담은 각종 인쇄물 배포, 인터네트와 전자우편을 통한 기념특집 조직, 회고카드 발송, 대자보와 벽보 게시 등 다양한 활동을 조직진행하였다.

특히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는 올해 2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90일간을 ≪백두기간≫으로 설정하고 ≪태양절기념 특간호≫ 등 각종 인터네트 위대성홍보물들을 제작배포하였다.

≪구국의 소리≫방송과 ≪구국전선≫ 인터네트에서는 태양절기념특집을 진행하였다.

≪한민전≫평양대표부에서는 뜻 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12일 내외기자회견을 조직하였다.

조선중앙통신 5월 3일

조국광복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건령도하신 우리 나라에서의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이미 1930년대 초부터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주객관적조건들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반일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할데 대한 로선을 내세우고 그를 관철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여 왔으며 1936년 5월에는 드디여 우리 나라에서의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였다.≫(≪김일성저작집≫ 1권, 169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1930년대 초부터 반일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벌려 오시는 과정에 쌓으신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시여 1936년 2월 남호두회의에서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3월에는 조국광복회창건준비위원회를 결성하시고 조국광복회창건준비사업을 적극 다그치시였다.

조국광복회는 빈틈없는 준비사업에 토의하여 1936년 5월 5일 력사적인 동강회의에서 창건되여 세상에 선포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를 담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조국광복회 회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조국광복회라는 조직의 명칭에는 조국광복에 대한 전체 조선인민의 절절한 념원이 담겨 져 있었다. 조국광복회는 당적령도가 확고히 보장된 우리 나라에서의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이였다. 조국광복회는 유일한 강령과 규약을 가지고 민주주의중앙집권적원칙에 기초하여 독자적인 조직지도체계를 갖추었으며 계급별, 계층별 대중단체들을 조직적으로 망라시켰을뿐아니라 각계각층 반일애국인사들을 개인자격으로 폭넓게 받아 들인 포괄적이며 전일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이였다.

조국광복회는 반일애국사상을 가지고 조국광복회10대강령의 실현을 위하여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남녀, 로소, 직업, 종교, 지방, 빈부, 당파 등의 차별이 없이 회원으로 받아 들이였다.

조국광복회 하부조직들은 계층별, 지역적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명칭으로 조직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광복회조직은 함경남북도의 넓은 지역과 문천, 철원, 후창, 동흥, 신의주, 평양, 남포,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적범위에서 조직되였고 동만과 남만 일대 그리고 북만일대의 조선인거주지역들에도 수많이 나왔으며 거기에는 수십여만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망라되였다. 장백일대에서는 1937년 2월에 조국광복회 장백현위원회가 결성되여 현위원회밑에 3개의 구위원회, 20여개의 지회, 그리고 수많은 분회들로 정연한 조직체계가 수립되였으며 1937년 1월에는 조국광복회국내하부조직의 하나로서 조선민족해방동맹이 결성되였다.

조국광복회는 10개 조항으로 된 강령, 본조항 8개장 14개조와 부칙 3개조로 된 규약 그리고 창립선언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기관지로 잡지≪3.1월간≫(1936년 12월 1일 창간)을 발간하였다.

조국광복회조직들은 조직을 확대강화하는 사업과 함께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적 인민들을 교양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 세우고 반일투쟁에로 힘있게 불러 일으키는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을 원호하고 그의 활동을 보장하는 사업을 적극 벌리였다.

그리고 민중무장조직을 무어 항일무장투쟁을 확대발전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조국광복회가 창건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로동계급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력량을 더욱 굳게 묶어세워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릴수 있게 되였다.

조선인민은 조국광복회10대강령의 혁명적기치 따라 뚜렷한 투쟁목표와 명확한 전망을 가지고 반일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 나섰으며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항일무장투쟁 및 당창건준비사업과 밀접히 결합되여 더욱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전국적범위에서 힘차게 발전하였다.

정치사전

조국광복회창건을 선포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민족대단결, 그 뿌리

오늘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 데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 것은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루는 것이다. 민족대단결은 통일의 주체를 강화하여 민족의 총력을 통일성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최선의 방책이며 민족대승의 길이다.

민족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다. 민족대단결의 훌륭한 전통을 마련한 조국광복회창립 64주년에 즈음하여 조국광복회가 이룩한 역사적 공적과 경험을 다시 새겨보는 소의가 여기에 있다.

조국광복회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구세제민의 태양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 주체25(1936)년 5월5일에 창립하신 우리 나라 최초의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이다.

조국광복회는 경애하는 주석님의 민족자주, 민족대단결 사상의 빛나는 구현이였고 그 알찬 결실이였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불멸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술회하시였다.

≪자주독립을 이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민족대단결을 바탕으로 하는 전민항쟁에 있고 민족대단결이 자력독립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적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일찍부터 주장해온 사상이었다. 통일전선은 주체확립과 더불어 항일혁명투쟁의 초시기부터 견지해온 가장 중요한 이념의 하나였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민족대단결과 통일전선의 숭고한 이념으로부터 출발하시어 항일무장투쟁의 초시기부터 여러 갈래의 민족주의세력과 반일애국역량과의 연합을 실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였고 중국땅에서 투쟁하는 여건에서 중국의 광범위한 반일역량과의 공동투쟁도 벌이시였다. 이 과정에 항일무장대오가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통일전선운동을 전국적 범위에서 벌여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귀중한 경험도 축적되었다. 더욱이 주석님께서 항일무장투쟁과 민족의 총력을 광복전선에 결집하기 위한 통일전선운동을 현명하게 영도하시는 과정에 민족의 구원자, 민족대단결의 구심점으로서의 권위를 확고히 지니시게 된 것은 통일전선운동을 전민족적 범위에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결정적 조건으로 되었다.

성숙된 주객관적 정세는 상설적인 통일전선체를 결성하고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상설적인 통일전선조직체를 내오는 것은 당시 분산적으로 진행하던 통일전선운동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통일전선운동에 대한 유일적 영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였다. 조국광복회가 창립되기 전까지 통일전선운동은 국내와 만주의 광활한 지역에 수많이 조직된 공청과 노동조합, 농민협회, 부녀회와 같은 계급, 계층별 대중단체와 반제동맹, 반일회와 같은 통일전선형태의 대중단체들을 통해 각계각층 군중을 항일의 기치밑에 결속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대중단체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조직이 없었기에 통일전선운동은 분산성을 면할 수 없었다. 이같은 한계성을 극복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모든 반일역량을 통일적으로 결속하고 지도하려면 포괄적이고 전일적이며 상설적인 통일전선조직체가 있어야 했던 것이다.

김일성주석님에 의한 조국광복회의 창립으로 항일무장투쟁을 백두산을 중심으로 국내 깊이까지 확대하는 새로운 전략적 단계에 상응하게 통일전선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야 할 민족사적 요청도 실현되게 되고 통일전선운동 자체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도 만족되게 되었다.

조국광복회가 창립됨으로써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위대한 주석님의 유일적 영도밑에 항일무장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어 전국적 범위에서 보다 조직성있고 체계성있게 전개되게 되었으며 모든 반일역량을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 수 있게 되었다.

조국광복회는 그 취지와 목적이 반일적이고 애국적인 것으로 하여 특히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이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이익 뿐 아니라 각계각층 민중의 이해관계를 폭넓게 수렴하고 집약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하여 전민족을 하나의 광복전선에 결집하는 강력한 구심체로 되었다. 조국광복회가 창립된 후 불과 몇달사이에 장백현일대에는 분회, 지회들로 연결된 정연한 조국광복회조직망이 형성되었으며 1937년 2월에는 조국광복회 장백현위원회가 결성되고 그 산하에 3개의 구위원회와 20개의 지회 그리고 수많은 분회들이 조직되었다. 1936년말에는 갑산지방에 조직되었던 반일대중단체인 갑산공작위원회가 ≪조선민족해방동맹≫이라는 명칭의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으로 개편되었으며 그 조직망은 갑산, 삼수, 풍산을 비롯한 북부국경일대의 넓은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조국광복회조직은 함경남북도의 대부분 지역과 철원, 평강, 후창, 동흥, 신의주, 평양, 남포,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각지에 뿌리를 내렸으며 멀리 일본 땅에까지 뻗어나갔다.

참으로 조국광복회의 창립은 민족해방운동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놓은 전환점으로 되었을 뿐 아니라 민족대단결의 뿌리와 전통을 마련하고 조국광복의 밝은 서광을 비쳐준 민족사적 사변이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친히 기초하시고 한자한자 다듬어 완성하신 조국광복회 10대강령과 창립선언은 거기에 관통되어 있는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숭고한 이념으로 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이 중대한 과제로 나서고 있는 오늘에도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 조국광복회 10대강령과 창립선언에 체현되어 있는 숭고한 이념을 구현하여 작성, 발표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통일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으로서 남과 북, 해외의 7천만 겨레를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 투쟁에로 힘있게 부르고 있다. 조국광복회창립의 역사적 경험은 민족의 대단결은 그 구심이 될 위대한 영수를 모실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우리 겨레는 민족대단결의 구심점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위대한 영수로 모시고 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 이룩하신 민족대단결의 전통과 경험을 살려 7천만 겨레가 경애하는 장군님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민족지상의 과제인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김수학 - 구국전선
주체89년 5월 1일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민중은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하는데 한사람같이 분기해 나설 것을 시대적 요구로 제기하고 있는 때에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 결성하신 조국광복회창립 65돌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날을 맞으며 각계애국민중은 지금 일찍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탁월한 민족대단결사상을 제시하시고 나라의 광복과 조국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치신 주석님의 거룩한 한평생을 가슴뜨겁게 돌이켜 보고 있으며 그분의 영생을 삼가 기원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경애하는 주석님께서 창립하신 조국광복회는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민족통일전선조직체였고 전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광복을 이룩할 수 있게 한 강력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당시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의 주, 객관적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통찰하신데 기초하시어 상설적인 반일민족전선체로써의 조국광복회를 결성하시고 민족단합의 사상을 명시한 조국광복회 10대 강령과 창립선언을 발표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광복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해서 민족자주와 항일성전에로 호소한 조국광복회 10대 강령과 창립선언이 있어 겨레 모두는 조국광복회 기치하에 하나로 결집될 수 있었고 마침내 민족주체의 힘,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광복의 역사적 대업을 이룩할 수 있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은 오늘도 우리 민족의 *** 찬연한 빛을 뿌리며 민족단합을 위한 조국통일의 길 위에 고무적 지침으로 되고 있습니다.

민족분열을 누구보다 가슴아파 하시며 그 길에서 불면불휴의 노고를 다 바쳐오신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생의 마지막시기에도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에 기초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발표하시어 조국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오늘날 민족자주의 기치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은 그 어느때보다도 민족대단결을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반세기여에 걸치는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투쟁사는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의 대단결에 조국통일이 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조국통일위업은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전민족적인 위업입니다. 모든 운동의 성과가 그것을 맡아 수행하는 주체적 역량에 달려 있듯이 조국통일위업도 그것을 담당수행할 수 있는 주체적 역량이 어떻게 준비되었느냐 하는 데 따라 좌우됩니다. 특정한 계급, 개별적 사람들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는 것이 조국통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다 같이 민족대단결의 길, 통일의 길에 분기해 나서야 합니다. 노동자, 농어민, 청년학생, 인텔리, 자본가, 종교인 등 각계각층 민중들은 소속도 다르고 처지도 다릅니다. 그러나 다 같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앞으로도 이 땅에서 살아야할 주인들입니다.

소속과 처지가 다른 것이 단합하지 못할 이유로 될 수 없습니다. 뭉친 힘이 승리한다는 것은 역사의 진리입니다. 뭉친 힘을 당할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통일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소속과 처지를 가리지 말고 단합하여 통일대진군길에 떨쳐나서야 합니다. 오늘의 시대가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세는 저들의 전략적 이익으로부터 우리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을 가로막아 보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인위적으로 우리 나라의 정세를 긴장시키면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정세는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외세를 배격하고 온 민족이 하나로 굳게 뭉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침략적인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의 공조를 실현해야 합니다. 민족공조는 시대의 요구이고 역사의 부름입니다. 7천만이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어 나가야 합니다.

통일운동에서는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입니다. 남과 북, 당국과 민간, 여야가 따로 없이 온 겨레가 통일의 주인이라는 자각과 의지를 갖고 사상과 이념, 신앙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서 통일운동에 분기해 나서야 합니다.

단결의 기치는 민족애와 민족자주입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의 핵도 민족애와 민족자주이고 전민족을 단합에로 불러 일으켜 광복의 서광을 안아온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의 핵도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민족자주를 실현해야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물리치고 민족의 이익을 고수할 수 있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일 수 있습니다. 민족자주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애국자이고 민족자주를 외면하는 사람은 매국노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격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걸음을 맞추고 단결해서 통일의 문을 여는데 주저 없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단결의 중심이 있으며 기치가 있습니다. 민족의 태양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우리 민족의 단결의 중심에 서 계시며 그분께서 정립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조국통일 3대 헌장과 민족대단결 5대 방침이 민족대단결의 앞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역사와 시대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을 민족단합의 중심에 높이 모시고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의 기치 따라 전 민족이 하나로 뭉쳐 조국광복의 대업을 이룩했듯이 **김정일**영도자님을 민족대단결의 중심에 높이 모시고 조국통일 3대 헌장과 민족대단결 5대 방침의 기치 따라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할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기어이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고 민족번영의 새 세기를 앞당겨 오는 여기에 무궁창창할 조국의 내일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논설 - 구국의 소리
주체90, 5월 3일~5일

조국통일과 민족통일전선

조국통일은 7천만 우리 겨레의 반세기여에 걸치는 비원이며 역사의 부름이다.

조국통일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자주적 위업이며 당국이나 몇몇 특정한 계급, 계층의 힘만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전민족적 위업이다. 조국통일은 그 자주적 본성과 거족적 성격으로부터 남과 북, 해외를 포괄하는 전민족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으고 힘을 합칠 것을 요구한다.

통일위업수행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 것은 민족의 대단결을 이루는 것이다. 자주성이 민족의 생명이라면 그것은 전민족의 단합된 힘과 주체적인 노력에 의해 담보된다. 자주와 단결이야말로 통일의 생명선이고 통일에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조국통일이 어느 때보다 절박한 역사의 대제로 나서고 있는 오늘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신 역사적 공적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다시 새겨보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

주석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55년전인 주체35(1946)년 7월22일 평양에서 북조선민주주의정당, 사회단체대표자회의를 소집하시고 역사적인 보고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위원회를 결성할데 대하여≫를 진술하셨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보고에서 당시 조성된 복잡한 정세와 8.15후 이북에서 실시된 제반 민주개혁의 성과들을 전면적으로 분석평가하신데 기초하여 상설적인 통일전선조직체를 결성하는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시었다.

≪오늘 조선이 나아갈 길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는 반민족적, 반인민적, 반민주주의적인 길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완전히 독립하는 길, 새로운 민주주의적 발전의 길, 역사를 앞으로 전진시키는 길입니다.(중략) 우리는 이 올바른 길을 따라 우리 민족의 역사적 숙망을 실현하여야 하며 조선의 완전한 민주주의적 자주독립을 이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위대한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적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의 튼튼한 통일단결과 그들사이의 더욱 긴밀한 협조입니다.≫

이 교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주석님께서는 광복된 조국땅위에 통일적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시기 위해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약칭 민전)의 결성을 발기하셨던 것이다.

민전은 이북의 모든 민주주의적 정당, 단체들을 망라하는 통일전선체의 상설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그후 4월남북연석회의를 통해 남북의 제정당, 단체들사이의 연합을 실현하시고 미제와 그 주구들의 ≪단선≫,≪단정≫을 반대하는 거족적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과정을 통해 남북의 애국역량을 하나로 묶어세우셨으며 그에 기초하여 민전을 남과 북의 진보적 정당, 단체들과 애국적 민중을 총망라하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약칭 조국전선)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

조국전선의 결성은 **김일성**주석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의 빛나는 구현이었고 민족통일전선운동에 대한 주석님의 현명한 영도의 알찬 결실이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일찌이 조국광복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에 자주독립의 열쇠를 민족단심에서 찾으시고 독창적인 민족대단결사상을 천명하셨다. 그것은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 재산의 유무와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계급, 계층이 민족공동의 요구와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하나로 굳게 단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석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이 주체사상을 민족문제에 구현하여 내놓으신 철저한 민족자주의 사상이고 숭고한 애국애족의 사상이며 가장 폭넓은 민족단합의 사상임을 말해 준다.

조국전선의 결성이 갖는 중대한 역사적 의미는 주체의 민족대단결사상을 구현한 전국적 규모의 통일전선조직이 출범함으로써 민족의 자주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남과 북의 모든 애국적 정당, 단체들과 각계각층 민중사이의 연대, 연합을 실현하며 온 겨레를 조국통일을 위한 하나의 흐름에 합류시키는 사업을 전민족적 범위에서 보다 조직적으로 힘있게 벌여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데 있다.

조국전선은 결성된 후 지난 55년동안 끊임없이 변화되는 정세발전의 요구에 상응하게 민족통일전선운동을 확대강화하며 온 겨레를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이북에서 지난날 두 단계의 사회적 변혁과 두 차례의 복구건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한데는 바로 주석님의 건국노선을 높이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이북민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헌신분투한 조국전선의 노력도 깃들어 있는 것이다. 조국전선은 특히 남과 북, 해외를 포괄하는 온 겨레를 내외분단세력의 민족분열영구화책동을 짓부수고 조국통일의 민족적 숙원을 성취하기 위한 거족적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참으로 주석님에 의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결성은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었다.

조국전선의 결성과 그가 걸어온 55년의 영광찬 노정은 통일전선은 민족의 단결이고 민족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임을 웅변으로 실증하고 있다.

한민전의 전위투사들들과 각계 민중은 조국전선결성 55돌을 맞으며 통일의 숙원을 이루는 길도, 민족만대의 부강번영을 이룩하는 길도 통일전선에 있다는 역사적 진리와 교훈을 깊이 새기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투쟁에 더욱 분발해야 할 것이다.

정명학 - 구국전선
주체90년 7월 21일

조국통일3대원칙발표 30돐기념 평양시보고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대하여≫발표 30돐기념 평양시보고회가 3일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앞에서 진행되였다.

보고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용순비서, 우당위원장들, 사회단체, 종교단체 책임일군들과 관계부문 일군들, 시내 각계층 근로자들, 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부위원장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김일성**주석의 로작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대하여≫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조선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가장 순조롭게 해결해 나갈수 있는 근본원칙과 방도를 밝힌 력사적문헌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주석께서 주체61(1972)년 5월 3일 북남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남조선측 대표들을 만나 담화하시면서 조국통일은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실현하여야 하며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하며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할데 대한 조국통일3대원칙을 천명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주석께서 조국통일3대원칙을 밝혀 주신 때로부터 두달이 되는 주체61(1972)년 7월 4일 북과 남은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력사적인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주석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식화해 주시고 온 겨레를 그 관철에로 힘있게 불러 일으키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주체89(2000)년 6월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북남공동선언을 마련하여 주시였다. 보고자는 6.15북남공동선언은 조국통일3대원칙을 구현하고 있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선언이며 21세기 조국통일의 리정표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미국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나라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거족적인 반미, 반전투쟁에 과감히 떨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조선중앙통신 5월 3일

조국통일3대원칙은 조국통일의 초석

3일부 ≪로동신문≫은 조국통일3대원칙은 공명정대성과 합리성, 정당성으로 하여 위대한 생활력을 과시하면서 통일운동을 힘있게 추동하여 왔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61(1972)년 5월 3일 북남고위급정치회담 첫 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남측대표를 만나 주시면서 자신께서 무르익혀 오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의 원칙들을 3대원칙으로 정립하여 천명하시였다.

론설의 필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풀어 나갈수 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밝힌 조국통일의 초석이라고 지적하였다.

론설은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자주적요구와 근본리익에 맞게 그리고 우리 민족의 주체적힘에 의거하여 풀어 나갈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갈라 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론설은 썼다.

무력에 의한 통일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론설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면 결정적으로 외세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끝장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론설은 민족대단결원칙은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전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행동지침이라고 지적하였다.

론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국통일3대원칙을 튼튼히 틀어 쥐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여 통일위업을 이룩하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하시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제시하심으로써 조선민족은 통일의 억센 3대기둥을 가지게 되였다.

조선중앙통신 5월 3일

금강산상봉행사와 ≪입산료≫는 아무 상관도 없다

조선적십자회 대변인 담화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금강산상봉행사와 관련한 남조선 ≪한나라당≫의 허위날조행위를 규탄하여 3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다음과 같다.

지금 온 겨레는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서 제4차 흩어 진 가족, 친척상봉이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기뻐 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원상회복기에 들어 선 북남관계가 더 좋게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남조선의 ≪한나라당≫만이 이에 등을 돌려 대고 당치않게 그 무슨 ≪금강산입산료≫라는것을 꾸며 내여 마치 우리가 이번에 금강산에서 진행하는 흩어 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을 ≪돈벌이에 리용≫한다느니 뭐니 하는 따위의 터무니 없는 악담을 늘어 놓았다.

≪한나라당≫패거리들의 이 악담질은 사실과 완전히 다른 거짓으로서 북남관계를 또다시 대결의 원점으로 돌려 세우고 흩어 진 가족, 친척상봉사업에 재를 치는 비렬한 망언으로 된다.

흩어 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과 ≪금강산입산료≫는 아무 상관도 없는것이다.

이번 금강산상봉행사와 관련하여 북남사이에서는 ≪금강산입산료≫니 뭐니 하는것이 애당초 제기된바도 없었고 론의된바도 없었다.

우리측으로서는 금번 상봉을 얼마전 북과 남이 합의한 공동보도문 리행을 위한 첫 사업으로 중시하고 흩어 진 가족, 친척들의 불행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며 북남관계개선에 다소나마 기여하도록 하려는것이 주되는 관심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패들이 허위날조에 매달리는것은 어떻게 하나 현 북남관계의 진전을 가로 막고 흩어 진 가족, 친척상봉에마저 찬물을 끼얹으려는 불순한 기도에서 출발한것이다.

≪한나라당≫패들은 이번에 있지도 않는 ≪금강산입산료≫라는것을 꾸며 냄으로써 이미 저질러 온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범죄우에 새롭게 반인도적인 죄악까지 덧쌓아 놓았다.

≪한나라당≫패들은 그 무슨 ≪입산료≫문제에 대해 제입으로 쏟아 놓은것만큼 그에 대한 똑똑한 근거를 무조건 제시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상투적인 졸렬한 수법에 매달려 남을 걸고 들것이 아니라 저들이 부정착복한 돈에 대해서나 남조선인민들앞에 사실대로 밸아 놓고 사람들의 엄정한 심판을 받는것이 좋을것이다.

우리는 ≪한나라당≫패거리들이 허위사실을 꾸며 내고 우리측을 모독해 나선데 대하여 사죄할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조선중앙통신 5월 3일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아시아지역토론회 개막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아시아지역토론회가 3일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개막되였다.

토론회에는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중국대북, 필리핀, 미국 그리고 조선의 북과 남, 총련, 재미동포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조선의 학계, 사회계, 언론계 인사들과 관계부문 일군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조선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홍선옥위원장이 기조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이번 토론회가 열리게 된것은 일본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진정한 사회적정의를 확립하며 일제에 의한 과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에서 또 하나의 전진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일본이 아시아인민들에게 끼친 상상을 초월하는 반인륜적죄악들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는 특히 일본이 그토록 씻을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조선에 대해서만은 과거청산을 방임해 둔채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시종일관하게 실시하면서 일본에서 살고 있는 조선사람들과 그 후대들에 대한 가혹한 민족적차별과 탄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일본은 과거청산을 회피한채 21세기 두번째 해에 들어 선 유일한 나라이라고 하면서 일제의 침략책동을 저지시키고 과거청산을 실현하기 위한 련대투쟁을 보다 폭 넓게 통일적으로 조직전개해 나가기 위하여 국제적인 협의기구를 내오는것이 필요하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이어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과 강제련행피해자들의 증언청취가 있었다.

회의는 계속된다.

조선중앙통신 5월 3일

조국통일의 3대 원칙에 대하여 (2)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북과 남 사이의 고위급 정치회담에 참가한 남조선 측 대표들과 하신 담화 1972년 5월 3일

1. 조국통일의 3대 원칙에 대하여 (2)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가 ≪남침≫하려 하며 남조선을 ≪적화≫하려 한다고 오해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남침≫할 의사가 없으며 남조선을 ≪적화≫할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기에 ≪남침≫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여러 번 천명하였지만 오늘 이에 대하여 당신에게 다시 한번 명백히 말합니다. ≪적화≫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남조선을 ≪적화≫하려 하지도 않거니와 우리가 ≪적화≫하려 하다고 하여 남조선이 ≪적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지난 시기에 당신들이 ≪남침≫이요, ≪적화≫요 하면서 품고 있던 오해를 이제는 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접촉과 대화를 통하여 오해를 풀고 신임을 두터이 해나가면 비록 사상과 이념이 다르고 제도와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초월하여 민족의 대 단결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민족의 대 단결을 이룩하는데서 또한 중요한 것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결하고 합작하려면 서로 존중하여야지 비방 중상하여서는 안됩니다. 지금처럼 서로 상대방을 비방 중상하는 일을 계속하면 북과 남이 가까워질 수 없으며 오히려 간격이 더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과 남은 서로 욕질을 하면서 비방 중상하는 것부터 없애야 합니다.

민족의 대 단결을 이룩하는데서 북과 남 사이의 경제적 합작을 실현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화국북반부에는 풍부한 자원이 있고 발전된 중공업이 있습니다. 남조선은 그전부터 경공업토대를 일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북과 남이 경제적으로 합작하고 유무 상통하면 당면하게 나서는 경제문제들을 더 잘 해결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의 자본을 끌어들이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민족경제를 빨리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북과 남이 합작하여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면 우리 나라는 일본이나 그 밖에 발전되였다고 하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잘 사는 나라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외관계분야에서도 북과 남이 공동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민족의 단결을 시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북과 남이 다같이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을 통일하려는 입장에 선다면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민족적 대 단결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상과 제도가 서로 다른 나라들과 민족들도 친선관계를 맺고 좋게 지내는데 하나의 핏줄을 이은 같은 민족끼리 사상과 제도가 다르다고 하여 단결하고 합작하지 못할 조건이 없습니다.

공산주의를 신봉하는가, 민족주의를 신봉하는가, 자본주의를 신봉하는가 하는 것은 민족적 대 단결을 이룩하는데 장애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에 있는 민족주의자들과 자본가들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남조선의 자본가들은 거의 다 민족자본가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기부터 민족자본가들에 대하여서는 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하여왔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민족주의자들과 민족자본가들을 포함한 남조선의 각계각층과 단결하고 합작하여나갈 것입니다.

셋째로, 조국통일은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서 북과 남 사이에 싸움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갈라진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이 평화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조선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 민족은 큰 재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의 열강들도 자기들끼리는 싸움을 하지 않고 서로 좋게 지내려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대통령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였는데 그는 앞으로 한 세대동안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중국의 만리장성을 돌아보고 나서 어떠한 장벽도 세계의 사람들을 갈라놓지 말아야 한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닉슨의 중국방문결과에 발표된 중국과 미국 사이의 공동 콤뮤니케를 보면 미국은 이때까지 승인하지 않고 있던 평화에 대한 5개 원칙을 승인하였습니다. 미국이 평화에 대한 5개 원칙을 승인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물론 미국사람들이 자기가 한 말을 어떻게 행동에 옮기는가 하는 것은 두고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은 말은 말대로 하고 행동은 그와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닉슨이 중국에 가서 한 말이 진심에서 나온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똑똑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로동신문≫은 닉슨의 중국행각을 논평하면서 닉슨이 만리장성을 돌아보고 한 말이 진심이라면 무엇 때문에 우리 나라의 한복판에 만들어놓은 군사분계선을 없애려 하지 않으며 ≪엠피≫라고 쓴 쇠바가지를 쓰고 거들거리는 미군병사들을 걷어가려 하지 않는 가고 썼습니다. 나는 이 논평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의 열강들도 싸우지 않고 서로 좋게 지내자고 하는데 하물며 같은 민족끼리 싸움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하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 사이에 싸움을 하지 않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면 무엇보다도 북과 남이 가지고 있는 군대를 줄여야 합니다. 나는 북과 남의 군대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이미 공개연설에서 여러 번 천명하였습니다.

군대를 줄여야 북과 남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할 수 있으며 군사적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지금 북과 남의 군사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우리는 다 같이 노력하여 우리 나라를 북과 남으로 갈라놓고 있는 군사분계선도 없애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쌍방의 많은 무력이 서로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전쟁의 위험을 면할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군사분계선일대에 있는 어떤 연대장이나 사단장이 잘못하여 한곳에서 총소리를 내면 쌍방이 서로 불질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싸움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앞으로 북과 남이 잘 협의하여 서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하여 담보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면 군사분계선일대에 있는 쌍방의 군사시설들과 군사인원들이 필요없게 될 것이며 군사분계선 자체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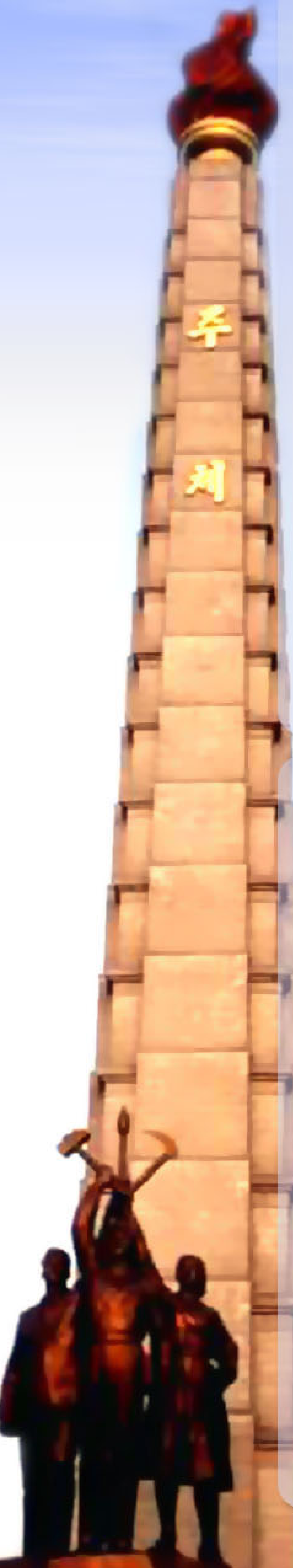
지금 북과 남이 각각 자위를 주장하고 있는데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기 위한 ≪자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북과 남은 힘을 합쳐 외래침략을 반대하기 위한 자위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 공화국의 자위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에 대한 외래침략을 반대하기 위한 자위입니다. 우리는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에 대한 외부세력의 침략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공화국의 영해에 무장간첩선 ≪푸에블르≫호를 침입시켰을 때 우리의 인민군해병들은 그 간첩선을 나포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국을 보위할 사명을 지닌 인민군대의 응당한 자위적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놈들은 우리에게 용서를 빌 대신 오히려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를 비롯한 숱한 무력을 동해일대에 끌어다 놓고 우리를 위협 공갈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었으며 엄중한 도발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놈들의 위협과 압력에 조금도 굽어들지 않았습니다. 미국놈들이 숱한 무력을 끌어들이면서 싸움을 일으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놈들과 싸울 결심을 단단히 하였습니다. 우리가 위협과 압력에 굽어들지 않자 미국놈들은 싸움을 일으키지 못하고 그냥 달아났습니다. 그때 만일 미국놈들이 싸움을 일으켰더라면 우리 민족은 또 한차례의 전쟁을 겪게 되었을 것이며 오늘 이렇게 북과 남의 당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

우리는 조선민족이 두 개의 민족으로 영원히 갈라지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야 하며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평화적인 회담을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외래침략자가 우리 나라를 침략한다면 북과 남은 힘을 합쳐 침략자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전체 조선민족이 힘을 합친다면 그 어떤 침략자도 능히 쳐 부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의 노력으로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없애고 긴장상태를 완화함으로써 조선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야 하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담화에서 북과 남 사이의 중요한 공통점을 찾았으며 가장 원칙적인 문제에 대하여 합의를 보았습니다.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실현하며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 대 단결을 도모하며 갈라진 조국을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할 데 대한 세 가지 원칙은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출발점으로, 기초로 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자는 데 대하여 당신도 찬성하고 또 남조선최고당국자도 찬성할 것이라고 한 것만큼 우리는 조국통일 3대 원칙에 대하여 완전한 합의를 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담화를 통하여 북과 남 사이에 조국통일의 3대 원칙이 합의된 데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북과 남이 공동으로 협의하고 견해의 일치를 본 조국통일의 3대 원칙은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정당한 원칙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3대 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당신이 이 3대 원칙을 기초로 삼고 나가겠다고 맹세하였는데 그렇게 하면 통일문제해결에서 나서는 다른 문제들도 성과적으로 풀 수 있으며 우리 민족의 통일을 빨리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국통일의 기본원칙이 합의된 조건에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 원칙을 구현하여 온 민족을 하나로 합치고 조국을 통일하겠는가 하는 구체적인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는 어디까지나 조국통일 3대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찾아야 합니다. 북과 남이 자주, 민족 대 단결, 평화통일의 3대 원칙에 기초하여 깊이 연구하고 진지하게 협의하면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좋은 방도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합리적인 방도를 모색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사이의 정치협상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며 접촉과 대화를 더 활발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북과 남의 고위급 대표들이 직접 만나서 회담을 진행함으로써 정치협상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과 남 사이의 정치협상이 시작된 것만큼 앞으로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 훌륭한 열매를 맺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당신이 먼저 평양에 왔으니 그 답례로 다음 번에는 우리 대표를 서울에 보내려고 합니다. 북과 남의 대표들이 여러 번 오고가는 과정에 서로의 신임이 두터워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 성숙되면 최고위급의 회담을 실현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북과 남의 대표들이 자주 오고가며 대화를 많이 하여야 합니다.

해방 후 거의 30년 동안이나 갈라져 있으면서 생긴 북과 남 사이의 오해와 불신임을 한두 번의 접촉과 대화로써 다 없앨 수 없습니다. 한 두 번 만나 협의하여 가지고서는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다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하여 북과 남이 서로 오해하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들을 풀고 중요한 공통점을 찾았지만 조국을 통일하려면 아직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오직 북과 남의 대표들이 자주 접촉하고 진지하게 협상함으로써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북과 남 사이의 대화와 협상에서는 서로 오해하고 있는 문제들을 비롯하여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다 내놓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무슨 문제든지 의견이 있는 것은 털어놓고 의논하여야지 서로 딴 주머니에 감추어 두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비록 자그마한 오해라도 생기면 제때에 내놓고 협의하여 풀어야 합니다.

북과 남 사이의 대화는 어디까지나 서로 이해를 깊이하며 공통점을 찾고 단결을 강화하는 원칙에서 하여야 합니다.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방도를 찾는데서 우리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 하는 것을 가지고 논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논쟁은 어디까지나 공통점을 찾고 단결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논쟁으로 되어야지 분열을 위한 논쟁으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북과 남 사이의 관계를 옳게 조절하며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나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기 위하여 북과 남의 공동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위원회를 조직하여 실제적인 조절사업을 하여야지 그저 일반적인 대화만 하여 가지고는 민족의 단결과 조국의 통일을 위한 사업에서 큰 전진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공동위원회는 북과 남의 당국이 각각 임명하는 고위당국자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필요한 성원들을 망라하여 조직하면 될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평양과 서울 사이를 잠깐 사이에 오고 갈 수 있으므로 당신들이 평양에 오기도 하고 우리 사람들이 서울에 가기도 하면서 공동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위원회를 조직하면 거기에서 조절하여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공동위원회는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않을 데 대한 문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할 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북과 남 사이의 관계에서 나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때에 협의하여 조절하여야 합니다. 공동위원회에서는 서로 자기 의사를 강요하려 하지 말고 제기되는 문제를 단결의 목적에 부합되게 이해를 같이 할 때까지 진지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평양과 서울 사이에 직통전화를 놓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전화를 통하여 수시로 협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국통일에 방해되거나 서로 오해할 수 있는 자그마한 문제라도 생기면 인차 전화로 알아보고 협의하여 제때에 풀어야 합니다.

이번에 북과 남 사이에 합의된 조국통일의 3대 원칙은 전체 조선민족이 공동으로 실현하여야 할 통일강령으로 됩니다. 나는 조국통일의 3대 원칙을 세상에 선포하여 전체 조선민족과 세계인민들이 그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국통일 3대 원칙을 발표하는 것은 우리 인민들을 교양하는 데도 좋고 세상사람들에게 조선민족의 단결을 시위하는데도 좋습니다. 북과 남이 합의한 통일강령을 발표하면 국내외의 모든 동포들이 우리가 분열된 조국을 자주적으로, 민족 대 단결의 원칙에서 평화적으로 통일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일치한 견해를 가지게 될 것이며 각계각층 인민들이 커다란 고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을 발표하면 세계인민들은 조선민족이 단결된 위대한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반대하는 외부세력들은 조선민족을 영원히 분열시키려 하여도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발표하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 대화과정에 토론하여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신이 서울에 돌아가 남조선당국에서 토론하고 북과 남의 대표들이 다시 만나 합의한 다음에 발표하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모처럼 평양에 찾아온 것만큼 하루 더 묵으면서 우리 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온 당신의 행동은 애국적인 소행입니다. 사람은 애국자가 되어야지 매국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사람이란 하루를 살아도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이로운 일을 하여야 영예스럽고 사는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북과 남 사이의 이번 회담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앞으로 평양에 자주 오기를 바랍니다.

(내일 계속)

3권 제7장

인민의 세상

1. 보금자리
2. 낮에는 적의 세상, 밤이면 우리 세상
3. 소비에트냐, 인민혁명정부냐?
4. 국제당파견원
5. 백마에 대한 추억

5. 백마에 대한 추억(1)

나는 원래 이 삽화를 세상에 공개할 의향이 없었다. 인생 80을 총총히 더듬어보는 이 글에서 군마 한 마리가 차짓하는 몫이란 사실 보잘 것 없는 것이다. 회억해야 할 영웅들은 얼마나 많고 은인들은 얼마나 많으며 사연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이 일화를 나만 아는 비밀로 묻어두기에는 백마에 대한 나의 추억이 너무도 애틋하고 그것을 소개하지 않고는 못 견딜 충동이 너무도 강렬한 것 같다. 더구나 그 백마는 많은 사람들과 잊을래야 잊을 수 없게 인정적으로 굳게 얽혀져 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역시 비밀로 남겨두기에는 아까운 일이다.

나에게 군마가 처음으로 생긴 것은 1933년 봄이었다.

하루는 십리평 인민혁명정부 일군이 그 일대에 주둔하고 있는 유격대 동무들과 함께 백마 한필을 앞세우고 나를 찾아왔다. 그 당시의 왕청대대 지후부는 소왕청마촌 리수구 골짜기에 있었다. 한 마리의 백마를 위한 행차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수행규모가 요란하였다. 십리평 사람들은 지휘부 앞뜨락에 말을 매놓고 그 뜨락으로 나를 불러냈다.

≪험한 길을 많이 걸으시는 김대장께서 타시라고 저희들이 말 한 필을 삼가 증정하오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십리평인민혁명정부 일군이 일행을 대표해서 하는 말이었다.

나는 이 대표단의 돌발적인 출현과 큰 행사라도 치르는 듯한 엄숙한 예절앞에서 몹시 어리둥절한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지금의 한 개 분대인원을 훨씬 초과하는 그 어마어마한 수행규모는 처음부터 나를 놀라게 했다.

≪이거 대접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나이 갓 스물에 백마를 타고 다니게 되었으니 호강이 지나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런 말로 겸양의 뜻을 표기하자 나이 지극한 십리평의 일군은 펄쩍 뛰는 시늉을 해보였다.

≪대접이 과하다니오. 왜놈들은 대대장만 되어도 장교랍시고 말을 타고 거들먹거린다는데 우리 빨치산 지휘관들이 그놈들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전책을 보니 홍의장군 곽재우도 말을 타고 의병을 지휘했다더구만요. 군사를 지휘하려면 뭐니뭐니해도 위풍이 있어얍지요.≫

≪이건 어디서 생긴 말입니까? 혹시 어느 농가에서 쓰던 역마가 아닙니까?≫

≪역마라니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건 역마가 아니라 관상마올시다. 일전에 십리평에서 정부위원으로 선출되었던 그 머슴꾼 출신 영감이 생각나십니까?≫

≪그 노인에게 이런 멋진 말이 있었다는게 믿어지지 않는데요.≫

나는 안정에 등자까지 걸린 백마를 유심히 살펴보고 쓸어보면서 넌지시 이런 말을 꺼냈다. 아무리보아야 그 백마는 역축으로 써오던 농경마가 틀림없었다. 십리평과 같은 골짜기에 관상마를 가진 농사꾼이 있다는 것은 잘 믿어지지 않았다. 지주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노인이 그처럼 호함진 백마를 관상용으로 가지고 있었다니 더 허황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십리평의 정부일군은 그냥 관상마라고 고집하였다. 역마라고 실토하면 내가 받아주지 않고 되돌려 보낼 것 같은 걱정이 들었던 모양이었다.

나에게 백마를 선물한 머슴꾼출신의 그 노인 이름이 무엇이었던지 지금은 기억에 삭막하다. 다만 성이 박씨였던 생각만이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다.

박노인이 나에게 백마를 선물한데는 무심히 스쳐들을 수 없는 감동적인 사연이 있었다.

이야기는 그가 머슴살이를 끝내고 지주집에서 나오던 때로부터 시작된다. 박노인이 늙마에 제구실을 할 수 없게 되자 지주는 그를 집에서 내보냈다. 그때 지주가 노인에게 품삯 대신 준 것은 자기 집 마굿간에서 출산한지 몇 달 안되는 털빛이 새하얀 망아지였다. 출산 직후 어미에게 깔려 마굿간에서 불우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기력도 쇠약하고 영양상태도 보잘 것 없었다.

참혹하게 병든 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산송장과 다름없는 새끼말을 주면서도 인색한 지주는 선심을 쓰는 체하였다.

박노인은 병든 말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수십 년동안 지주를 위해 궂은 일 마른 일 가리지 않고 고역을 치러온 봉사의 대가가 그 새끼말이라고 보면 인생이 통털어 너무나도 허망하고 세상인심이 너무나도 야박하지 않느냐 하는 슬프디 슬픈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슬하에 일점혈육도 없이 외톨이로 고독스럽게 살아가던 박노인은 그 망아지를 장중보옥처럼 끔찍이 아끼고 있는 정성을 다하여 돌봐주었다. 망아지는 자라서 어엿한 백마가 되었다. 그는 고독이 엄습할 때마다 백마의 곁에 찾아가서 푸념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한탄도 하였다. 백마는 그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딸이었고 친구였다.

일생을 천덕꾸러기로 살아온 박노인은 자기를 말이나 소와 같은 역축과 동렬에 놓고 세상의 온갖 푸대접을 응당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람답게 대하면 그는 오히려 불편해하거나 송구스러워하였다.

그런데 이 노인이 십리평유격구에서 정부위원으로 선거된 것이었다.

그날 그가 받아안은 감격이 얼마나 컸고 그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가 하는 것은 여기서 누누이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 감격은 바로 그날 저녁 정부 마당에 노인이 친히 끌고온 백마가 무언으로 설명해 주었다.

≪회장어른, 나를 대신해서 이 백마를 **김일성**대장에게 드려주시오. 내 오늘 난생처음 그분의 덕으로 사람대접을 받아봅니다. 흉중에 가득한 고마움을 표기할 길이 없어 몇 해를 두고 살찌워온 이 애마를 드리오니 제 심정을 잘 말씀드려주시오.≫

이것은 인민혁명정부 회장에게 한 박노인의 부탁이었다.

이런 사연까지 듣고 나니 그 백마를 사양하기도 딱하였다.

≪거절하고 싶지만 사연이 하도 절절하니 고맙게 받아들인다고 노인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런데 몰이꾼 한분만 오면 될 길을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왔습니까≫

나는 십리평 정부일군에게서 말고삐를 넘겨받은 다음 일행을 향해 두루거리로 물었다.

≪김대장 어른이 마상에 오른 모습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싶어 군대와 인민이 대표를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대장 어른, 어서 말안장에 오르십시오!≫

십리평 인민혁명정부일군이 정색해서 하는 말이었다. 2중대 대원들도 그에 합세해서 마상에 오르라고 성화를 먹였다. 내가 말에 오르는 것까지 보고서야 그들은 흡족해서 십리평으로 돌아갔다.

박노인의 성의와 공경심은 이를 데 없이 고마웠지만 나는 며칠이 지나도록 그 백마를 타지않았다. 내가 말을 타고 호강하게 되면 인민들이 나를 곱지 않게 볼 수 있고 대원들도 지휘관들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나는 병기창에서 일하는 이응만에게 그말을 주었다. 브로닝권총 한 상자를 사가지고 와서 유격대에 입대하였다는 그 이응만이다. 아주 담대하고 용감한 사나이였는데 그만 아랫다리 총상자리가 말썽을 일으켜 다리를 잘랐다.

이응만의 다리를 수술한 사람은 소리수구 대대병실 근처에 자리잡고 있던 유격구병원 의사 장운포였다. 그는 소왕청의 의학계를 대표하는 유일한 인물로서 내과도 보고 외과도 보는 만병통치의의사였다. 의사가 한 명밖에 없으니 혼자서 이것저것 다 치료하였다.

그 당시유격구 병원의 관리를 담당한 것은 호조회였고 환자들의 파견장에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은 인민혁명정부 회장이었다. 이 호조회가 희사협의회를 대신하는 권한을 가지고 총알에 뼈를 다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수술을 하라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약품도 없고 특별한 치료대책도 없다보니 그렇게 극단적인 결정까지 만들어 내지 않을 수 없었다.

장운포는 시계태엽으로 칼을 만들어 이응만의 다리를 잘랐다. 이렇게 되어 이응만은 유격대 활동에 참가할 수 없는 불구가 되었다. 그는 퇴원 후 한동안 병원 근처에 있는 양성룡의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의 어머니의 간호를 받았다.

이응만은 내가 준 백마를 요긴하게 타고 다니면서 병기창 생활을 아주 보람차고 명랑하게 하였다.

얼마 후 나에게는 또 다른 한 마리의 백마가 생겼다. 그 백마는 대황구전투 때 우리 부대가 일본군 부대를 치고 노획한 말이었다. 전각루전투에서 노획한 말이라고 회상하는 투사들도 있다는데 나는 구태여 그것을 부인할 생각이 없다. 어디에서 생긴 말인가 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수중에 있고, 일본군 장교가 타고 다니던말이 생겼다는데 있고, 그 말이 만사람의 인기를 끄는 나무랄데 없는 군마라는데 있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매복전을 조직하였는데 그 백마의 임자인 일본군장교가 운수사납게도 첫 번째 과녁이 되어 말잔등 위에서 굴러 떨어졌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주인을 잃은 백마가 적진으로 달아나지 않고 우리 지휘부가차지하고 있는 산비탈로 곧추 다가왔던 것이다.

→

조왈남 전령병은 백마가 나타나자 지휘부가 적의 목표물로 될 것 같아서 그 말을 자꾸 신작로 쪽으로 쫓아버렸다. 전령병은 나무드덜기와 탄피까지 집어 뿌렸지만 짐승은 자기 주인의 곁에 돌아가지 않고 다시 우리한테로 오곤 하였다. 나중에는 네 다리를 떡 버티고 서서 움직이지조차 않았다.

≪가지 않겠다고 버둥질하는 짐승을 쫓아버리면 되나. 푸대접도 분수가 있지.≫

나는 조왈남을 나무랐다. 그리고는 얼마동안 말갈기를 쓰다듬어 주었다.

전령병은 몸으로 나를 막아서며 겁에 질려 소리쳤다.

≪적의 주의가 지휘부를 가려볼 경황이 됐나. 벌써 저렇게 줄행랑을 놓는데.≫

물론 말은 유격대의 노획물이 되었다.

대원들은 일본군 장교를 위해 봉사하던 말이 우리한테로 의거해온 사실에 처음부터 신비스러운 색채를 부여하려고 애썼다.

≪이놈의 짐승이 조선사람들과 일본사람을 가려볼 줄 알거든. 우리가 조선사람이라는 걸 판단하고는 서슴지 않고 의거를 단행하지 않았나.≫

마패를 보고 백마의 출산지가 경원(새별)이라는 것을 알아낸 대원들이 하는 말이었다.

다른 대원들은 그보다 더 신빙성 있는 의거 동기를 찾아냈다.

≪일본군장교가 평상시 말을 혹심하게 학대한 것 같애. 그러지 않고서야 이놈이 짐승이 자기 주인이 너부러지기 바쁘게 우리한테로 넘어올 리가 있나.≫

우리는 전투장에서 철수하여 마촌으로 돌아올 때 역축으로 쓰라고 어떤 중국 노인에게 이 백마를 주었다. 간도 땅에서는 소와 함께 말도 역축으로 널리 이용되었다.

그런데 그 후 얼마 안되어 노인은 우리 부대에 찾아와 말을 되돌려 주었다. 발목이 너무 가늘고 연약해서 역축으로는 쓸모가 없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성미도 이만저만 괴벽스럽지 않다고 하였다. 자기같은 것은 가까이에 범접못하게 하니 도무지 다룰 수도 없고 휘어잡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나의 전우들은 그 말을 듣고나서 ≪아무래도 이 말은 우리한테 있을 팔자야.≫하고 말했다. 그리고는 나의 배장근통을 걱정해주면서 말을 타고 다니라고 권해주었다. 한두 해에 끝날 유격전쟁도 아닌데 아픈 다리를 그렇게 혹사하다가 영영 주저앉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 배장근통 때문에 나는 사실 그 당시 행군할 때마다 큰 불편을 느끼곤 하였다. 어려서부터 걸음을 너무 많이 걸은데서 온 병인지도 모르겠다. 길림 시절에는 간혹 기차도 타고 자전거 같은 것이라도 타고 다녔지만 항시적인 봉쇄상태에 놓여 있는 왕청골 안에서는 그런 호사를 바랄 수도 없었다. 산발을 타고 하루에도 수십수백리씩 강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유격구 생활은 걸음을 자유롭게 걷지 못하던 나에게 있어서 커다란 육체적 부담으로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나는 전우들의 청을 사양하였다.

이렇게 되자 전우들은 당회의를 열고 아무 아무날부터 **김일성**동지는 말을 타고 다닐 것이다 하는 결정을 채택하여버렸다. 그들은 양성룡대대장까지도 말을 타고 다니게끔 결정서를 아주 묘하게 꾸며놓았다. 혼자서 말을 타고 다니라고 하면 내가 기를 쓰고 반대할 것이라는 점까지 미리 타산했던 것 같다.

조직의 결정이니 더 거역할 수 없었다.

처음 말을 타는 날 전우들은 우리를 에워싸고 손벽을 치면서 기뻐하였다.

마적부의 기록을 보니 경원군마보충부 출산이라고 적혀있었다. 때로는 뿌잇뿌잇하게 잿빛으로도 보이고 때로는 백설같이 새하얗게도 보이는 날씬한 말이었다. 발굽이 경마용처럼 가늘었는데 뛸 때는 비호처럼 날랬다.

조왈남

이 말이 나를 한 2년쯤 태우고 싸움마당에도 나갔고 때로는 사람의 발자취마저 닿아본 적 없는 천고의 밀림속으로도 다니면서 우리와 함께 온갖 경난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말이 이따금씩 추억속에 나타나 내 가슴에 짜릿한 정서를 부어주곤 한다.

나의 하루 일과는 말관리로부터 시작하였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빗자루로 털에 낀 먼지를 털어주기도 하였다. 관리 경험이 없고 요령도 없으니 만경대 할아버지가 소를 거둘 때 빗자루로 이곳저곳을 쓸어주던 모습을 기억에 되살리며 그 방법을 모방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백마는 빗자루가 몸에 닿을 때마다 내 곁에서 달아나곤 하였다. 내가 백마와 한창 실갱이질을 하고 있을 때 이치백노인이 쇠로 만든 빗을 나에게 주면서 그것으로 한 번 등을 긁어주면 알도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 쇠빗으로 등부터 긁어주었더니 말은 땅에 발통을 붙이고 가만히 서있었다.

나는 말잔등에 안장을 얹다가 안장의 가죽과 모달리천 사이에서 자그마한 주머니를 발견하였다. 그 주머니 안에는 마적부라는 자그마한 수첩과 함께 쇠빗, 털빗, 걸레쪼박, 쇠꼬챙이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다. 쇠빗, 털빗, 걸레쪼박의 용도는 짐작만으로도 알 수 있었지만 끄트머리가 수술칼처럼 생긴 쇠꼬챙이의 용도만은 가늠이 가지 않았다.

나는 쇠꼬챙이 들고 백마의 곁으로 다가갔다.

기적은 그 다음 순간에 일어났다. 백마가 곡마단의 말처럼 한쪽발을 건뜻 쳐들었던 것이다. 이것은 쇠꼬챙이와 발통 사이의 관계를 말해주는 어떤 암시임이 틀림없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좀처럼 짐작할 수 없었다.

말은 내 주의를 안타깝게 빙글빙글 돌다가 먼발치에 박혀있는 발뚝곁에 다가가 그 위에 앞발하나를 걸터놓았다. 박바닥의 마제짬에는 흙, 돌쪼각, 짚오래기들이 잔뜩 끼어 있었다.

쇠꼬챙이로 그것들을 파주었더니 말은 다른 발통을 올려놓고 능청스럽게 내쪽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이처럼 어림짐작으로 말 사양법을 익혀가고 있을 때 국내종마장에 있는 사람이 소왕청 친척집에 왔다가 나에게 말 사양의 묘리와 승마요령을 대주고 돌아갔다 그가 하는 말이 말은 몸에 먼지가 앉거나 발통에 사금파리 같은 끼는 것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하루에 두 번 정도씩 깨끗한 물로 씻어주고 쓸어주고 긁어주고 기름까지 발라주어야 하며 발굽에서 흙이나 검불 같은 것을 제때에 파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말이 비를 맞거나 땀을 흘리면 물기를 잘 닦아내야 한다고 하였다.

말의 사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건초와 귀밀이라는 것, 보리와 콩도 좋은 사료라는 것, 사람과 마찬가지로 말도 매일 소금을 조금씩 먹여야 한다는 것, 과도한 운동을 한 후에는 찬물을 많이 먹이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도 그 종마장 사람이 나에게 가르쳐준 하나의 비결이었다.

이런 과정에 나는 백마와 친숙해졌다. 말은 내 요구나 의사 앞에서 늘 고분고분했다. 나의 눈빛이나 손동작만 보고서도 자기가 할 바를 미리 알아차리고 그에 맞게 봉사를 따라세우는 백마의 총기는 나를 놀라게 하였다. 저것이 과연 사람이 아니고 말이란 말인가 하고 만사람이 다같이 경탄할 정도로 백마의 성미나 행동에서는 예술적으로 완성된 어떤 하나의 인격미를 연상시켜주는 면모를 종종 엿보게 되는 때가 있었다.

그런데 백마는 영리하고 충실한 반면에 성질이 매우 사나웠다. 그 말은 주인 아닌 남이 자기를 건드리거나 안장에 올라타는 것을 절대용납하지 않았다. 어떤 싱검둥이가 말을 타고 싶어 고삐를 잡으면 빙빙 돌면서 타지 못하게 하였으며 지어 뒷발질을 하거나 물려고까지 하였다.

조왈남도 백마를 타보려다가 푸대접을 받았다. 처음에 그는 백마를 툇마루밑에 세우고 빗으로 옆구리를 슬슬 빗어주다가 날파람 있게 몸을 날렸는데 안장에 몸이 닿는 순간 말이 옆으로 후닥닥 내뛰는 바람에 땅바닥에 엉덩방아만 찧었다.

이런 천대를 맛본후 조왈남은 아주 기발한 승마방법을 고안해냈다. 그 방법이란 발목까지 빠지는 시궁창에 말을 세워놓고 말이 풀을 뜯는 사이에 슬쩍 올라타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방법도 조왈남을 도와주지 못하였다. 그는 이번에도 시궁창 벼락만 뒤집어썼다.

어린 전령병은 백마를 나무에 비끄러매놓고 회초리로 그 분풀이를 톡톡히 하였다. 그 후부터 백마는 조왈남이 곁에 나타나기만 해도 들고뛰거나 발길질을 하였다. 그때 조왈남은 너무 안타까워 울기까지 하였다. 자기가 아무리 정을 다해도 말이 곁을 주지 않고 태워도 주지 않으니 중대로 돌아가겠다고 하였다.

나는 조왈남에게 백마가 너를 배척하는 것은 백마에게 바치는 너의 지성이 모자라기 때문이니 지성을 더하라고 하였다. 그런 다음 양마요령을 차근차근 대주었다. 조왈남은 내가 일러준 대로 백마를 위해 있는 정성을 다 바쳤다. 백마가 그 정성에 정성으로 보답한 것은 물론 두말할 것도 없다.

(내일 계속)

송시

또다시 노래하노라 우리의 붉은기 (2)

어느분이냐
어느분이 이 거창한 력사의 진두에 서시여
쿵쿵 지구를 울리며
세기의 숫눈길우에
첫 자욱을 찍어 가는것이냐

붉은기 열점을 향해 우러르니
그분이시다
역시 그분이시다
붉은기를 높이 드시고
20세기를 자랑스럽게 마무리하신분

아, 백두의 근엄한 모습으로
세기의 진두에 거연히 서시여
하늘땅공간에 눈 부신 채광을 뿌리시며
21세기 하늘가에
붉은기를 높이 추켜 들고 나가시는
김정일장군!

이 땅에 높이 울리는
붉은기의 펄럭임소리는
그이 담대한 심장의 숨결인듯
폭풍속에 나붓기는 기치의 장엄함은
그이의 강철의 의지인듯

한평생 붉은기를 높이 휘날려 가시는
그이께 매혹되여
나의 운명도 첫 시작부터
붉은기와 뜨거운 인연을 맺지 않았던가

내 언제 한번 순간도 떨어 진적 있었으랴
붉은기 펄럭임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자랐고
앞가슴에 날리는 붉은 넥타이
강선의 붉은 노을을 시에 담아
붉은기의 노래로 불렀더라

나의 운명을 안고 높이 나붓긴
붉은기를 생각한다
인민의 운명
혁명의 운명을 안고 세차게 휘날린
붉은기를 생각한다

파란만장의 곡절 많은 20세기
그이께서 붉은기를 더 높이 들지 않았다면
20세기의 그날에 우리는 벌써 노예가 되였으리
우리의 하늘 우리의 땅도 짓밟히여
망국의 곡성을 터쳤으리
우리에겐 이름 석자도 집도 거리도 없었으리
우리의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으리

하여 내 시의 붓을 높이 들어
인민의 운명은 곧 붉은기
붉은기는 곧 인민의 운명임을
력사의 진리로
이 세상에 소리높이 선언해 왔나니

내 오늘 또다시 웨치노라
수령의 위대한 덕망중
가장 위대한 덕망은
어려울 때 인민을 버리지 않는것

하기에 력사는 안다
지구를 들어 올리는 천하장수가 있다 해도
붉은기만은 들수 없음을
인민의 운명이 실려
붉은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임을

흠모

김정일각하는 주체의 혁명무력건설에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희세의 영장이시다

니카라과신문 ≪엘 누에보 디아리오≫ 지난해 6월 23일부가 ≪**김정일**각하께 원수칭호를 수여≫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군인들 속에 계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시며 공화국원수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진을 모시였다.

신문은 글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가 수여된 데 대하여 전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어 항일전의 총성을 자장가로 들으며 성장하신 **김정일**각하는 일찍이 **김일성**주석의 군사 사상과 이론, 군사전법을 체득하시고 자위적 국방건설의 벅찬 투쟁 속에서 탁월한 영군술, 풍부한 군사활동경험을 쌓으시었으며 주체의 혁명무력건설에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희세의 영장이시다.

김정일각하께서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전군을 주체사상화할 데 대한 탁월한 노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하여 오시었다.

전군의 주체사상화가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인민군대안에 당의 영도체계가 철저히 서고 혁명무력건설의 초기에 이룩된 일심단결과 충실성의 전통이 굳건히 이어졌으며 전군이 **김정일**각하의 영도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군풍이 확립되었다.

그이께서는 주체의 군사 사상과 이론에 기초하여 혁명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독특한 전략과 전술을 완전무결하게 밝혀주시었으며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무비의 담력과 강철의 의지를 지니시고 인민군대를 승리의 한길로 이끌고 계신다.

그이께서는 인민군대를 군사 기술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군인들을 높은 군사 기술적 자질을 갖춘 일당백의 당의 전사로 키워주시었으며 현대전의 특성과 세계 군사과학 발전추세를 예리하게 통찰하시고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를 현대화하도록 현명하게 영도하여 오시었다.

또한 그이께서는 인민군대안에 주체의 영군술과 항일유격대식 부대지휘관리방법을 확립하시고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 미풍이 높이 발양되게 하심으로써 인민군대가 주체의 혁명무력으로서의 본분을 다 할 수 있게 하시었다.

조선혁명의 승리적 전진과 더불어 끊임없이 발양되어온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미풍은 **김정일**각하의 영도 밑에 오늘 더욱 활짝 꽃 펴나고 있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영도력, 고매한 덕성과 인품을 지니고 계심으로 하여 당과 혁명무력의 영도자로서의 높은 권위와 위신을 지니고 계신다.

그이의 품은 인민군장병들에게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주고 일당백의 용맹과 무비의 담력을 키워주는 한없이 은혜로운 품으로 되고 있다.

조선의 혁명무력은 **김정일**각하를 최고사령관으로, 원수로 높이 모심으로써 자기 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역사강좌 제9회
학사 김창호선생 - 주체91, 5월 3일

깊은 사색을 천품으로 지니고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어려서부터 깊은 사색을 천품으로 지니고 계신데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사색이라고 할 때 무엇을 풀거나 찾아내기 위해서 생각을 더듬고 사고를 거듭해나가는 탐구과정을 말합니다. 어떤 일에서나 성과의 여부는 사색을 얼마나 깊이 하는가에 많이 달려있습니다. 사색을 깊이할 때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고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색을 멈추면 답보와 후퇴만이 있게 됩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어려서부터 깊은 사색을 천품으로 지니고 계신 사색형의 위인이십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은 사색하기를 대단히 좋아한다고, 깊은 사색은 **김정일**동지의 천품이기도 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시절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사색은 고도의 정신노동입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보통 연기에는 사색이 극히 단순하게 진행되게 되며, 많은 경우 감성적 단계에 진행되게 됩니다. 어린이들이 무엇을 하다가 점차 싫증을 느끼고 사고가 다른데로 돌려진다던가, 꽃밭에 간 어린이들이 그저 꽃이 곱다던지 이 꽃은 빨간꽃이고 저 꽃은 하얀꽃이라고 대하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줍니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려서부터 지니신 깊은 사색은 보통 어린이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남다른 것이었습니다.

그이께서는 어떤 사물현상을 대하셔도 그러셨고, 무슨 얘길 하셔도 그렇고 그저 스쳐보내지지 않으시고 ≪왜?≫, ≪어떻게 하는지?≫ 의 물음을 제기하시고 그 본질과 원인을 아실 때까지 사색을 깊이 하셨습니다.

그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고 계신 깊은 사색은 어떻게 발현되었겠는가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그의 사색은 항상 분석적이고 탐구적이며 독창적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한 바와 같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고 계시는 사색은 항상 분석적이고 탐구적이며 독창적인 사색입니다.

우선 경애하는 장군님의 깊은 사색은 항상 분석적입니다.

사색을 분석적으로 한다고 할 때에는 사물의 전일체를 이루고 있는 개별적 요소들이나 관계를 갈라내 가지고 따로 따로 고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사물현상의 본질이나 구성요소를 밝힐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보통의 어린이들은 생각하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께서는 어리신 그 때 벌써 어른들도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까지 폭넓고 깊이 있게 사색을 분석적으로 하시었습니다. 한가지 실례를 들겠습니다.

주체37(1948)년 가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 어린이들과 함께 태엽을 감아놓으면 저절로 굴러가는 자동차 놀이감을 가지고 노셨는데 어린이들이 자동차게 왜 저절로 굴러가는가 하고 그이께 물었습니다. 그이께서는 자동차가 저절로 굴러가는 것은 태엽 때문이라고 하시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이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이께서는 그 원인을 정확히 인식시켜 주기 위해 놀이감 자동차를 뜯어 어린이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자동차의 속을 하나하나 설명해주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설명을 듣고서야 어린이들은 놀이감 자동차가 굴러가는 원인이 태엽 때문이고 태엽에 의해서 자동차바퀴가 굴러간다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시대와 인류 앞에 쌓으신 사상이론적 업적 이것은 그이께서 지니고 계신 깊은 사색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어 그이께서 놀이감 자동차를 다시 조립하시었습니다. 그런데 조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이께서는 뜯어놓은 자동차를 어머님께 가져다 보이시고 자동차를 뜯게 된 사연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어리신 그이의 행동을 긍정해 주시면서 자동차를 분해할 때 잘살펴 보면 조립도 능히 할 수 있다고 하시었습니다. 이틀 후 어머님께서는 놀이감 자동차를 한 대 더 사가지고 오셔서 그이께서 한 번 더 뜯어보도록 하시었습니다. 그이께서는 자동차의 구성요소들을 하나하나 침착하게 살펴보면서 뜯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어머님께 혼자서도 맞출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돼서 놀이간 자동차는 어리신 경애하는 장군님 혼자의 힘으로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이 실례는 장군님께서 어리실 때 지니셨던 사색의 일단을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다음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깊은 사색은 탐구적이라는데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이께서는 네 살 되시던 해에 어머니에게 개미는 먼데 갔다가도 길을 잃지 않고 곧바로 제집을 찾아오는데 눈이 그렇게도 밝은가? 나비는 왜 꽃밭으로만 찾아가는가? 또 지구가 돈다고 하는데 왜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가? 하는데 대해서 묻곤 하셨습니다. 어느 여름날에는 구성지게 울어대는 매미를 보시고 다른 새들은 다 자기 둥지가 있는데 매미는 집이 어디에 있는가에부터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질문을 제기한데에만 그치지 않으시고 그 원인에 대해서 끝까지 해명하시었습니다.

그이께서 유치원에 다니시던 때 어머님과 함께 꽃밭에 물을 주시던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눈에 띄게 커 가는 꽃나무들을 보시면서 어머님께 왜 날마다 물을 주는가고 물으시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꽃나무도 물을 먹어야 살 수 있다고 하시며 물이 꽃나무의 밥과 같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어머님의 이 말씀은 어리신 그이로 하여금 더욱 큰 의문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이께서는 어머님께 꽃나무는 입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먹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정원 한 구석에 돋아있는 풀을 뽑아 드시고 그 뿌리를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이렇게 탐구에 탐구를 거듭하시는 과정에 그이께서는 뿌리가 입이라는 것을 알아내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아무리 사소한 일도 무심히 대하지 않으시고 깊이 파고드셔서 그 원인을 끝까지 해명하고야 마는 성미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리신 그 때 이처럼 탐구를 깊이 하셨기 때문에 초급 중학교 시기에만도 선행 고전들과 정치경제문화군사를 비롯한 여러분야의 수많은 책들을 탐독하셨고 또 대학시절에는 인류사상 그 누구도 제기하지 못했던 높은 탐구목표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선행한 노동계급의 수령이었던 레닌은 자기의 탐구목표를 인류가 창조한 모든 부에 대한 지식으로 자기의 기억을 풍부히 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럼 우리 장군님의 탐구목표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사상 정신적 유산들을 독파할 뿐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이론 실천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미지의 지식까지도 남김없이 습득하는 것을 탐구목표로 설정하시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장군님의 무한대의 탐구심에 대해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깊은 사색은 독창적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어리셨을 때 사색은 그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한 말 그대로 독창적인 것이였습니다.

주체 36(1947) 여름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리신 그이께 이웃에 사는 한 여인이 심청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장군님께서는 의욕을 가지고 어머님께 바닷속에 들어가면 정말 용궁이 있느냐고 물으시었습니다. 어머님으로부터 바다 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자신께서는 물속에서 날아 다니는 비행기를 만들어 타고 온 세상 바다를 다 돌아다니며 물고기도 잡아오고 금은보석들도 캐다가 우리 인민들에게 나누어주겠다고 하시었습니다.

참으로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한 기발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리신 그이께서 어느 한 농촌마을에서 그 때 그 곳 농민들이 큰 나무들 사이에 큰 그물을 쳐놓고 참새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새그물에는 몇 마리의 참새들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던 그이께서는 참새를 비롯한 이 세상 나쁜 새들를 다 잡겠다고 하늘에 그물을 치겠다고 하시었습니다. 그러시면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면서 그물을 쳐서 참새처럼 나쁜 새들을 따라가면서 다 잡아버리겠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어리신 그이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린시절에 지니신 깊은 사색은 그 누구도 생각치 못하는 그런 독창적인 것이었습니다.

보신바와 같이 경애하는 그이의 사색이 이렇게 분석적이고 탐구적이며 창조적인 것이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정일**동지가 어릴 때부터 마음속으로 그가 앞으로 크면 대단한 이론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믿으시었던 것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은 세계 진보적 인류가 그처럼 높이 우러르며 칭송하고 있는 탁월한 사상이론가로 커다란 업적을 쌓으시고 계십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시대와 인류 앞에 쌓으신 사상이론적 업적 이것은 그이께서 지니고 계신 깊은 사색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장군님의 명언에는 ≪사색의 태만자는 큰 건달꾼이다. 백 번 사색하고 한 번 선택하라.≫라고 하신 명언이 있는데 이것은 그이의 정력적인 사색활동이 낳은 구문들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오늘도 낮과 밤을 이어가시며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리셨을 때 천품으로 지니신 창조적인 사고력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일본군국주의의 역사왜곡책동 짓부수자

지금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들, 아니 세계 진보적 인류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역사왜곡책동을 더욱 교활한 방법으로 악랄하게 벌이고 있잖아요. 새 세기에 들어선 오늘 자유와 평등, 진보와 번영을 바라는 인류의 지향이 날로 높아가는 오늘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면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부활시켜보려고 광분하고 있는 일본. 그 일본이 역사왜곡책동에 그토록 기를 쓰고 매달리는 저의는 어디에 있는지, 이 용납못할 범죄행위를 분쇄하기 위해 우리 청년학생들은 어떻게 투쟁해 나가야겠는지 그에 관해 김현규씨 모시고 얘기 나눠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김현규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지금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들속에서는 일본의 역사왜곡책동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에 관해 얘기좀 나눠보자고 자리 같이했습니다. 그럼 먼저 최근 일본의 역사왜곡책동의 일환으로써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고등학교용 역사교과서 내용에 관해 간단히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김현규 : 이미 알려진 것처럼 지난 4월 9일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왜곡된 고등학교용 역사교과서 ≪최신일본사≫의 검정을 통과시켰는데요. ≪최신일본사≫의 내용을 보면 우리 나라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했고 또 고대 일본이 한반도의 남부를 지배했다는 설도 여전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시기에 종군피해여성문제는 전혀 다루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일제가 아시아에 대한 침략전쟁에서 감행한 저들의 악랄한 범죄적 만행에 대해서도 언급조차 하지 않고 흑막속에 묻어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그러니 결국 일본 극우보수세력들의 이같은 책동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저들이 저지른 전대미문의 전쟁과 침략, 약탈의 범죄를 미화하려는 날강도적이고 파렴치한 역사날조행위가 아니고 뭐겠어요. 독도가 고유한 우리땅이고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일본으로 건너가 문명을 전파시켰다는 건 엄연한 역사적 진실이죠. 그리고 일제가 감행한 침략전쟁과 종군위안부문제 역시 우리 민족과 아시아민중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덮씌운 전대미문의 침략역사였고 큰 범죄였잖아요.

김현규 : 아시다시피 일제는 우리 민족의 말과 글, 우리 성과 이름마저 빼앗고 조상대대로 물려온 우리의 귀중한 민족문화유산들을 여지없이 파괴하고 강탈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자기의 넋을 버리고 황국신민으로써 일본 천황에게 충성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는 강점전기간 중세기의 노예매매제도를 반복하는 야만적인 방법으로 600여만명의 조선 청소년들을 연행, 납치해서 저들의 침략전쟁터와 부역장들에 내몰아 인간이하의 노예노동을 강요하고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근20만명의 우리 여성들을 종군위안부로 끌어다가 일본군대의 성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일제는 우리의 토지와 부존자원, 소를 비롯한 농축산물과 모든 생산품들을 약탈하다 못해 군수품생산을 위해 집들에서 놋그릇과 숟가락, 젓가락까지 빼앗아가는 그런 비열한 범죄행위도 감행했습니다.

사회자 : 그런데 문제는 역사적 사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저들의 더러운 역사를 미화분식하며 왜곡날조하기 위해 광분하고 있는 검은 속셈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김현규 :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피로 얼룩진 저들의 과거역사를 외면하고 후대들에게 군국주의와 해외침략사상을 주입시켜 그들을 통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회자 : 그러나 일제가 과거에 저지른 이런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왜곡하고 우리의 소중한 영토인 독도를 저들의 땅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재침욕에 환장이 된 군국주의광신자들만이 꿈꿀 수 있는 망상이라 하겠죠. 지난날 일제 식민지통치하에서 우리 민족이 당한 피눈물의 역사를 뼈저리게 체험한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이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파렴치한 역사왜곡책동을 절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죠.

김현규 : 청년학생들은 동조동근, 내선일체의 간판밑에 감행한 일제의 흉악한 민족말살책동을 단죄고발해서 일제의 죄악을 우리 겨레 모두가 대를 두고 영원히 잊지 말게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학생운동조직들과 운동핵심들이 인터넷홍보, 노래패활동, 사이버시위, 거리와 가두홍보, 선전단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제의 죄악상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주기 위한 대민홍보활동을 적극 벌여야 합니다. 일본상품배척투쟁과 친일파청산투쟁 등 다양한 반일투쟁도 힘있게 벌여야 합니다. 당면하여 청년학생들은 지난 4월 21일 고이즈미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배를 계기로 높아가고 있는 반일감정을 고양시켜서 각계 민중과 굳게 연대해서 범국민적인 반일투쟁열풍을 몰아와야 할겁니다.

일본군국주의의의 역사왜곡규탄반대투쟁에서 중요한 건 이 투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반전반부시, 반이회창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벌이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다같이 6.15공동선언이행을 가로막고 대북강경정책과 침략책동으로 한반도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있는 우리 민중의 공동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이회창은 일제에게 충실한 개였던 친일분자의 자식으로써 오늘은 미국과 일본 두 상전을 섬기며 민족을 팔아먹고 있는 특등 친미친일매국노입니다. 따라서 반미, 반일, 반전, 반이회창투쟁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다같이 벌여나가야 할 공동의 투쟁과제로 되는 겁니다.

사회자 : 역사는 왜곡한다고 달라질 수 없고 범죄는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묻혀버릴 수 없죠.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은 일본 극우보수세력의 후안무치한 역사왜곡행위와 군국주의부활책동을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과감한 투쟁으로 기어이 짓부셔버릴 겁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사회자 :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그 10년이 열번, 아니 백번 더 흘러간대도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야망은 절대로 변할 수 없죠. 우리 청년학생들은 일제 식민지치하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겪은 그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일제의 군국주의부활책동을 반대해 계속 줄기찬 투쟁을 벌여나가야 할거예요.

청년학생들과 함께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1일~3일

사회각계에서 ≪주적론≫ 삭제를 요구

사회적으로 ≪주적론≫의 삭제없이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화해단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여론화되고 있으며 각 단체들이 그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일연대는 최근 ≪2002 국방백서≫에서 ≪주적론≫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6.15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시대에 들어선 오늘 ≪주적론≫은 있어서는 안되며 더이상 있을 명분도 없다고 언명했습니다.

성명은 문민정권때부터 국방백서에 사용되기 시작한 주적론은 대북대화거부정책 등의 산물로 생겨난 개념으로써 이로 인해 민족의 대립과 대결은 더욱 격화되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성명은 군부들이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주적≫개념을 원치않는다며 국방부는 ≪2002 국방백서≫에서 ≪주적≫개념을 삭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남북사이에 분란을 일으키는 ≪주적≫표현을 고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우리 민중의 일치한 의사를 반영한 지극히 정당한 주장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각계층 민중은 이북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해 여러 갈래의 남북대화가 진행되고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 교류가 좋게 이루어지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통일애국의 길에 한결같이 나서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한국자유총연맹≫과 수구언론을 비롯한 극우세력들은 ≪주적≫표현을 삭제 또는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떠들어대고 있는데 이것은 겨레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차단봉을 가로지르는 반평화, 반통일행위로 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6.15공동선언정신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이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화상대방인 이북을 여전히 ≪주적≫으로 대하고 있으니 어떻게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가 있겠습니까. 국방백서에 북을 ≪주적≫으로 규정한 것을 삭제하지 않는 한 당국이 떠드는 화해, 협력이라는 것들이 완전히 거짓이고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오직 대결과 전쟁뿐이라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대화와 통일의 상대인 북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지 않으려고 책동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북을 더이상 대화의 상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국방부는 사회각계에서 대화상대방인 북을 ≪주적≫으로 규정한 것을 즉시 삭제하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국방부가 사회각계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을 주적으로 규정한 것을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남북사이에 어떤 대화와 협력도 기대할 수 없게 만든다면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남북간에 대화와 협력이 활성화될 것을 바라고 있는 각계 민중은 국방부가 ≪주적론≫을 삭제할 때까지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3일

통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용납못할 사대굴종행위

지금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민중들속에서는 최성홍외교통상부장관에 대한 분격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나오고 있는데요. 학생운동가 박모씨의 글 우리 들어보며 통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사대매국분자들의 추악상을 다시금 새겨봅시다. ≪통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용납못할 사대굴종행위≫.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의 기치를 힘차게 날리며 남과 북, 해외에서 통일열풍이 세차게 끓어번지고 있다.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을 통일하려는 겨레의 의지는 더욱 굳세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5일에 발표된 공동보도문에 따라 일시 중단되었던 이산가족상봉을 비롯하여 여러 갈래의 대화와 접촉들이 추진될 수 있게 된데 관해 겨레는 진심으로 기뻐해 마지않고 있다. 지금 사람들은 민족문제를 외세에 의존함이 없이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를 통일시대라 이름하며 이 역사적인 시대앞에 지닌 사명감을 다해나갈 의지로 가슴들을 불태우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땅에는 통일열기로 끓어번지는 오늘의 격동적인 통일시대에 배치되게 행동하면서 사대굴종과 민족분열행위를 자행하는 자들이 있어 각계층 민중의 분격을 자아내고 있다. 최성홍외교통상부장관이 그 대표인물이라 할 수 있다.

얼마전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맞장구를 쳐주면서 상전에게 아부아첨하는 댓가로 살길을 열어나가는 사대매국분자의 추악상을 그대로 드러내보였다. 심지어 그는 남북관계가 회복되어가고 있는 것이 마치 미국의 힘의 정책의 결과인 듯이 사실을 오도하는 악담도 거리낌없이 늘어놓았다. 자타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대북강경압살정책이 가져온 것은 6.15공동선언발표를 계기로 해빙기를 맞았던 남북관계를 다시금 얼어붙게 하는 것 외에 다른 아무 것도 없었다. 평화와 안정이 깃들던 한반도에 핵참화를 예언하는 전쟁기운이 감돌고 6.15공동선언이행의 앞길에 애로와 난관이 조성되어 겨레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대북강경정책과 북침전쟁책동에 기인된다.

오늘 남북관계가 원상회복되고 남북사이에 대화와 접촉이 다시 시작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민족문제를 외세에 의존함이 없이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려는 북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성의있는 노력, 겨레의 드높은 통일지향이 안아온 결과물이다. 그런데도 최성홍은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의 산물인 남북관계의 새로운 진전에 관해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의 결과물인듯이 광고하며 상전에게 아부아첨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 용납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청년학생들은 최성홍의 망언을 6.15남북공동선언과 4.5공동보도문에 따라 남북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깃들기를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용납못할 배신행위로 인정하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남북사이에 모처럼 마련된 공동보도문이 이행단계에 들어선 때에 당국자들속에서 튀어나온 이같은 망발은 공동보도문을 의도적으로 뒤집어엎고 정세를 또다시 긴장격화의 국면에로 되돌려 세우려는 반민족행위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평화문제에 책임있는 최성홍의 이같은 망언은 결코 그 어떤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실은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들로 하여금 남북관계개선에 관해 표방하는 당국의 속셈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있는지 상전에게 아부하여 권력을 유지하려는데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당국은 이에 관해 반드시 명백하게 대답해야 한다.

자주와 민족대단합의 열풍이 고조되는 오늘의 통일시대에 최성홍과 같이 외세에 아부굴종하고 민족분열을 고취하는 민족반역배가 서 있을 곳은 어디에도 없다. 이같은 사대매국분자를 그대로 두고서는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도 남북관계의 진전도 바랄수 없다. 격동적인 통일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학생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해 미국과 그 하수인인 최성홍과 같은 역사의 오물들을 척결하기 위해 더욱 과감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청년학생들과 함께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1일~3일

최성홍 외교통상부장관의 망발을 반박한다

재야언론인 허우현씨의 글 ≪최성홍 외교통상부장관의 망발을 반박한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이 최근 미국에 가서 한 망발이 지금 사람들의 강렬한 비판을 받고 있다.

얼마전 최성홍장관은 미국에 찾아가 미국의 대북강경책을 추어주고 마치도 미국의 이러한 대북강경책의 결과로 남북관계에서 현재 새로운 전진이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 이것은 6.15남북공동선언과 4.5공동보도문을 이용하여 남북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바라고 있는 온 겨레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사대매국적이며 반민족적인 행위이다.

≪한국≫의 대외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최장관은 응당 6.15공동선언의 정신대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대화를 발전시키는데서 응분의 책임을 다해야 할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미국에서 한 발언은 오히려 상전의 행위를 맞추고 그의 힘을 빌어 동족을 해쳐보려는 추악한 속셈을 드러냈을 뿐이다.

지금 온 겨레는 남과 북사이의 합의에 따라 일시 중단되었던 이산가족상봉을 비롯하여 여러 부문에서 대화와 접촉이 추진되게 된데 대해 한결같이 기뻐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강경압살정책으로 말미암아 동결상태에 처해 있던 남북관계가 회복되고 남북사이의 대화와 접촉이 다시 시작되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민족문제를 외세에 의존함이 없이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려는 이북의 철석같은 의지와 성의있는 노력의 결과이다.

그런데 외교통상부장관이란 직책을 가진 사람이 미국에 찾아가 지금 남북관계가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이 마치도 미국의 힘의 정책의 결과인 듯이 허구에 찬 발언을 한 것은 이북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모독으로 된다.

이북은 세계가 인정하듯이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처럼 여기는 나라이다. ≪푸에블로≫호 사건과 핵사찰사례가 보여주었듯이 그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공갈에도 끄떡없이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켜내는 것이 이북이다. 남북사이에 모처럼 4.5공동보도문이 발표되고 그 이행단계에 들어선 바로 지금 이남의 외교당국자의 입에서 튀어나온 이러한 망발은 공동보도문을 의도적으로 뒤집어엎고 한반도정세를 또다시 긴장격화에로 되돌려 세우려는 위험천만한 배신행위로 분석된다.

미국에 가서 한 최장관의 발언은 그 어떤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평화문제에 책임이 있는 고위당국자의 발언이기 때문에 이남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 문제의 엄중성이 있다. 이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자주통일을 위해 성의있는 노력과 아량을 보여주고 있다. 이남 당국은 지금 이북의 이와 같은 애국애족의 입장을 미국상전에게 아부하여 권력을 유지하려는 불순한 목적에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이남당국이 다시한번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이북은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미국의 힘의 정책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민족내부문제를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자체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북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이남 당국은 이북의 성의를 악의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

외교통상부장관 최성홍처럼 미국상전을 섬기며 동족을 우롱하고 모독하는 민족반역의 무리들은 지체없이 제거되어야 한다. 이런 자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도 바랄 수 없으며 남북관계의 개선도 기대할 수 없다.

글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2일~3일

F-X사업, ≪신문고를 울려라!≫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F-X사업 규탄 만민공동회 열려

F-X사업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에게 할 말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현대판 ≪신문고≫가 열렸다.

4일 오후 2시 서대문 독립공원에서는 ≪F-X 사업 외압 의혹 진상규명 및 F-15K 선정 철회 공동행동≫(F-X공동행동) 주최로 ≪굴욕적인 FX사업 추진 규탄 만민공동회≫가 진행됐다.

주최측은 이날 ≪만민공동회≫의 취지에 대해 ≪3.1운동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독립공원에서 대미예속적인 국방정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부의 F-15K 도입결정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이날 만민공동회는 이러한 취지에 따라 참가자들과 시민들이 자유롭게 나와 연단에 마련된 징을 치고 3분간 발언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사회를 맡은 김종일 자통협 사무처장은 이를 두고 조선시대 임금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던 제도인 ≪신문고≫에 비유했다.

이날 만민공동회는 3일부터 서울 산업대학교에서 ≪한국대학생 5월 축전≫을 진행하고 있는 한총련 학생들이 뒤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예정보다 늦게 시작됐지만 젊은 대학생들의 활기찬 율동공연으로 노인들이 대부분인 공원 주변의 분위기를 한껏 띄우며 활기차게 진행됐다.

첫 발언에 나선 택시기사를 하고있는 허세욱씨는 ≪김대중 대통령은 후대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미국제 고물 전투기를 들여오고 미국의 모든 폭탄들을 매향리로 가져오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왜 미국에게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티즌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전진한씨는 ≪얼마전 F-15K 도입 결정에 항의하며 네티즌들이 사이버시위를 벌여 국방부와 청와대 사이트를 마비시켰다≫며 ≪어제 대통령이 여론을 고려하여 F-15K도입 재가를 한달 연기한 것처럼 더욱 힘을 합쳐 F-15K 도입결정을 철회시키자≫고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전진한씨는 또한 ≪예전에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 미국의 눈치를 봤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들의 돈을 가지고도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며 국방부의 대미예속적인 국방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만민공동회에는 고등학생이 발언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경기 흥진고 성훈기군은 ≪지금까지 F-X사업을 추진해오는 것을 관심있게 지켜봤지만 결국 F-15K가 선정되는 것을 보고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았다≫며 ≪쓰레기 같은 비행기를 비싼 돈을 들여 사올 수 밖에 없는 굴욕적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주장해 참가자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또, 이날 만민공동회는 철거민, 학생, 노동자 등 다양한 계급, 계층이 참여해 의의를 더했는데 참가자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유일한 치적인 6.15공동선언 정신을 위배하는 F-15K 도입 결정을 철회하고, 국민의 혈세를 진정으로 국민이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참가자들의 발언이 모두 끝난 후 주최측은 ≪F-15K 도입 결정 규탄≫과 ≪F-X 사업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고사를 진행하고 청와대에서 가까운 사직공원까지 거리행진을 하는 것으로 만민공동회의 순서를 모두 마쳤다.

장동렬기자
통일뉴스 2002/05/04

F-15K와 미국산 무기도입의 문제

평통사, 한총련출범식 강연회에서 강연회진행

4일 오전 10시 ≪한국대학생5월축전≫이 진행되는 서울산업대 인사관 202호에서는 ≪F-15K 선정을 통해 본 미국산 무기도입의 실태≫에 관한 강연이 열렸다. 이 강연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유영재 운영위원이 진행했으며 ≪차세대전투기사업≫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위해 7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유 운영위원은 지난 3월 26일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일꾼들과 평통사 회원들이 국방부 진입과 구호를 외치다 전경들에 의해 입이 막히는등 가혹한 진압을 녹화한 비디오 상영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차세대전투기사업의 진면목은?

◎이북의 핵심적인 군사기지, 주요 시설이 있는 곳을 파괴하고 통일 후 주변 국가들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방부는 95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으나 이북의 경계심을 부축이고 6·15공동선언에 역행할 뿐이다. 이미 국방부는 F-15K를 도입하기 위해서 사업명을 ≪차세대≫를 ≪차기≫로 바꾸는 등 본래 고성능 전투기를 도입하겠다는 목적도 지켜내지 않고 있다.

○ 도입의 배경은?

◎보잉사의 이해를 대변하는 미국 공화당은 2천억달러 규모의 통합전투기사업에서 탈락한 보잉사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하고, 공장의 노동자 2만명의 고용을 유지하고자 했다. 또한 2004년 중단될 F-15K 생산라인을 지속하고 무기체계를 통한 식민지성 유지를 강화하고자 우리나라에 압력을 가했다.

○F-15K 도입의 문제점은?

◎≪사지 않으면 한미관계에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미주리주(보잉사 공장 위치) 상원의원 크리스토퍼 본드 외 한미연합사령 등 주요 관료들이 전방위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국가 주권을 침해했다.

F-15K는 라팔과의 모의 공중전에서 0 : 10으로 완패했음에도 가격은 타 기종보다 5천억원 비싼 5조8천억원으로 국가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미친다. 그리고 성능평가의 기본요소를 F-15K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평가과정이 불공정하고, 이를 공개도 하지 않아 국민들의 의혹만 커지고 있다.

○F-15K 도입 반대 투쟁의 의미는?

◎비록 투쟁이 실패할지라도 무기도입에 관련한 국방부의 전횡에 제동을 걸고, 나아가 차세대전투기사업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평화군축운동의 대중적 토대를 마련한다.

○우리가 할 일은?

◎평화군축운동은 미개척 분야다. 따라서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하여 보다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운동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유뉴스 2002/05/04

확실하게 미!쳐보자 Oh!no U.S.A FESTIVEL

Oh! no USA 美쳐보자! 경희대에서 2만여 명 모여 진행

지난 5월 3일 늦은 7시, 경희대 노천극장에서 oh!no~U.S.A FESTIVEL이 열렸다. 미국을 객관적으로 보고 부강된 통일한국을 위한 이번 행사는 1,2부 發光 STAGE와 oh!no~U.S.A FESTIVEL로 이루어졌으며, 초등학생들부터 대학생,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행사의 의의에 공감한다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었다.

짜릿한 기타음으로 시작된 콘서트는 처음부터 흥분으로 공연장을 에워쌌다. 싱어송라이터 우미진의 노래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언더그라운드 밴드 레이지본의 열정적인 무대로 흥분을 더해갔다. 이 공연을 지켜보고 있던 동일고등학교 임소리(17)는 ≪인터넷에서 이번 행사를 접하게 되었는데 정말 멋있는 것 같고, 미국 반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장충, 광희초등학교의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이 나와 미국제품 등을 붙인 송판을 격파했다. 시범단 중 한명인 장충초등학교 박주한(11)어린이는 ≪미국제품 불매운동에 대해 알게 된 것 같고요, 나와서 하려니 창피하기도 했지만 재미있었어요≫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행사의 흥을 더하기 위하여 다음으로 무대를 빛낸 사람은 각설이 기만서. 넉살 좋은 입담으로 세간에서 큰 유행을 불러 일으켰던 가상 ≪김대중 대통령과 미국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흉내내어 무대의 열기를 더하였다.

다음 순서로 문정현 신부가 무대에 나와 ≪우리 스스로 우리를 믿으며 청년들은 주먹으로 싸우자≫는 발언을 해 참가한 사람들의 사기를 높혔다. 또한 F-15k불매를 노래화한 ≪종이비행기≫라는 노래를 열창해 많은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다음으로는 한민족 네티즌 위원회 대위원장 유승오씨의 ≪아빠가 딸 지민이에게≫ 주는 편지글로 뭉클한 감동을 자아내기도 했으며 그룹 ≪타카피≫의 흥겨운 공연이 계속되었다.

공연에 오르기 전부터 관중들의 뜨거운 함성을 받은 ≪우리나라≫. 정열적인 무대매너로 ≪또라이 부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등을 열창한 우리나라는 ≪공연하는 것은 힘들지 않고, 더 많은 노래를 하고싶다≫며 ≪네티즌이 나서서 이런 무대를 만든 뜨겁게 하나되는 기회가 흔치 않았었는데 앞으로 이런 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민석 작사, 작곡의 ≪Fucking U.S.A≫를 부른 박성환씨가 공연의 마지막 열기를 더했으며, 또한 작곡가 윤민석씨도 공연무대에 올라 관객의 열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공연을 관람하던 경기기계공고 김민수(17)은 ≪예전까지는 미국제품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행사보고 불매운동에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행사를 보고 있자니 한국인을 하나라고 느껴 뿌듯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공연 출연자들이 함께, 또한 한마음으로 노래부르며 oh!no~U.S.A FESTIVEL의 그 거대한 막을 내리었다.

이번 행사는 어느모로 보나 그 의의가 아주 크다. 대중가수, 민중가수 함께 공연을 만들어간 이번 공연은 또한 네티즌과 청년학생들이 함께 꾸려 나갔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 날의 감동, 그 날의 흥분, 그 날의 열기를 잊지 말았으면 한다. 확실하게 미! 쳐보자!!!

유뉴스 2002/05/04

죽어서야 기억되는 여자 윤금이

故윤금이 10주 추모극 ≪금이야 사랑해..2≫

경기도 동두천 보산동에서 주한미군 케네스 마클(당시 20세)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됐던 윤금이씨의 살해현장 사진을 보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92년에 나는 중학생이었고 어떤 언론에서도 그 사진을 볼 수는 없었다.)

밀가루인지 세제인지 흰가루 더미에 묻혀 눈두덩만 덩그라니 드러나 있는 고깃덩이같은 시신을 찍은 사진을 보고 ≪이게 뭐지?≫라고 갸우뚱했던 것도 잠시..... 시선을 돌려 장우산이 깊숙히 꽂혀있는 아랫도리를 발견하고는 마치 내 장기가 파열된 듯 진저리를 쳤던 기억이 새롭다.

그리고 그 사진의 주인공이 바로 ≪주한미군에 의해 살해된 기지촌 여성≫이라고 너무도 간단하게 알려진 윤금이씨란 걸 알고 순간적으로 내가 느낀 것은 ≪바로 내가 그 일을 당한 것 같았던 공포감같은 것≫이었다.

윤금이씨가 사망한지 올해 10월이면 10주년이 된다.

극단 우림의 ≪금이야 사랑해2...≫는 다시금 그녀를 현재로 불러내 우리의 가슴한켠 아픔과 죄책감을 후벼파내는 연극이다.

연극은 시종 금이의 모습에 관객 자신을 투영하게 만든다. ≪금이도 나와 같은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은 곧 ≪나도 금이가 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한다.

이와 같은 감정이입은 어쩌면 자연스럽게 개망나니같은 주한미군과 자주적이지 못한 대한민국,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녀들을 지켜주지 못한 대한민국 남성들과 모든 사람들에 대한 증오로 이어지도록 한다.

연극을 관람한 관객들은 공연평을 통해 반성과 참회를 한다. ≪사진 속의 그 모습이 너무나 끔찍해서 잊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시간탓을 하지만, 잊은 것이 시간때문이라는 것은 정말 변명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다. 금이를 사랑해야 했는데...≫

극단 우림은 ≪금이야 사랑해...2≫를 초청하는 단체 · 학교 등 어디든 가서 윤금이씨의 삶을 나눌 예정이다. 그녀의 외로운 삶과 처참한 죽음은 언제 어디서든 계속 불러내어져 우리의 삶속에 살아있어야 한다.

홍미진기자
시민의 신문 2002/05/03

노동법 개악에 쐐기를 박는 투쟁 필요

회담은 결렬 됐으나 개악 시도는 계속 될 듯

지난 5월 3일 정오부터 전국은행연합회관 16층 banker≫s club에서는 노사정 최고위급 회담을 열고 지난 4월24일 노사정위가 제안한 조정안을 토대로 주5일 근무제 협상을 벌였으나 최종 결렬되었다. 이날 전해투와 비정규직 노조는 오전 11시부터 한국노총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동법 개악과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을 규탄했다. 또한 사회진보연대는 최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은행연합회관 16층 회의장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 노동조건 전면 후퇴 노사정 합의 박살 내자, 노동자를 우롱하는 노사정위 해체, 노사정 합의 기만이다. 노동법 개악 중단하라≫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날 협상 결렬과 관련하여 불안정 노동공동투쟁은 ≪최고위급 회담은 표면상 결렬된 것으로 보이지만 안건 자체를 노사정 위원회 본회의에 넘김으로서 노동법 개악의 쐐기를 박는 투쟁이 요구된다≫고 밝혀 비정규 노동자들과 노동법 개악저지 투쟁에 함께 하고있는 노동 단체들의 투쟁은 계속 진행 될 전망이다. 사회진보연대 이상훈 교육부장은 이번 노사정 합의 시도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와 노동귀족 한국노총의 배신적 행각에 대해 단호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주5일 근무를 빌미로 하는 노동법 개악에 대해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입장이 요구되어 진다≫고 밝혔다.

용오기자
참세상뉴스 2002/05/04

미국의 2002년도 국가정보보고서와 한(조선)반도 정세변화의 전망 (2)

차 례

(1) 미국의 2002년도 국가정보보고서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는가?

(2) 다시 민족주체적 정세관으로 돌아가서

▶ (3) 2002년의 한(조선)반도 정세가 예고하는 것

(3) 2002년의 한(조선)반도 정세가 예고하는 것

조・미 공동성명을 백지화하려 하고, 한(조선)민족의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방해하려는 부시 정권의 책동으로 한(조선)반도에 냉기류가 흐르고 난관이 조성되고 나서 어느덧 1년이 지났다. 그 한 해 동안 조・미 정치협상과 남북 정부당국의 정치협상에서는 이렇다할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처럼 한(조선)반도의 정세가 답보상태에 빠지게 된 모든 책임은 무분별한 책동으로 정세발전을 가로막으려고 했던 부시 정권에게 있다.

그런데 올해로 넘어오면서 워싱턴에서는 조・미 관계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색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하는 것은 북(조선)에 대한 부시 정권의 관심과 미국 여론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조선)에 대한 부시 정권의 관심과 미국 여론의 관심은 국제원자력기구가 북(조선)의 핵시설을 사찰하는 문제와 북(조선)이 보유하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문제로 집약된다.

먼저 북(조선)에 대한 부시 정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한 일련의 움직임을 관찰하면 다음과 같다.

2002년도 국가정보보고서가 상원 정보특별위원회에 제출되던 날인 1월 10일 뉴욕에서는 한(조선)반도 평화회담 특사인 잭 플리처드가 유엔주재 북(조선) 대표부의 박길연 대사를 만났다. 미 국무부는 논평에서 ≪의례적인 만남≫이라고 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하려고 하였지만, 지금 조・미 정치협상과 관련하여 워싱턴 정가에서 변동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 의미를 축소하기는 힘들다. 1월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서 두 나라의 대북정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고, 2월 하순으로 예정된 부시의 남(한국) 방문에서도 또한 대북정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워싱턴 타임스≫는 2002년 1월 12일자 기사에서 부시가 남(한국)을 방문하면 대북정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한・미 외무장관 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조선)반도 평화회담 특사와 유엔주재 북(조선) 대사가 만난 것은 ≪외교가의 상견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금 미국의 여론은 조・미 정치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매우 중시해야 할 변화다. 2002년도 국가정보보고서가 발표되기 직전인 1월 11일 미국의 최대 활자언론매체인 ≪뉴욕 타임스≫는 ≪더욱 심각한 위험(The Greater Danger)≫이라는 제목으로 니콜러스 크리스토프가 쓴 판문점발 기사를 실었다.

미국인들에게 조・미 적대관계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는 판문점에서 작성한 이 기사는 부시 행정부의 강경파들이 미사일방어체계를 일본과 남(한국)에게 팔아먹으려고 북(조선)의 ≪미사일 위협≫이라는 구실을 요구하는 한편, 대북 포용정책을 홀시하였다고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그 기사는 오늘날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파산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도 부시가 반대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 기사는 1972년에 닉슨의 중국방문으로 중국이 전환기를 맞았던 것처럼, 이제는 북(조선)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부시는 ≪북(조선)과 거래를 재개함으로써 위협적인 공산주의 강대국인 북(조선)을 상대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여론이 조・미 정치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남가주대학(USC)의 한국(조선)문제 전문가들인 에릭 헤이킬라와 조오지 타튼 3세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2002년 1월 15일자에 기고한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조선)반도에서 평화가 사라지지 않게 하라(Don≫t Let Korea Peninsula Peace Slip Away)≫라는 그 기고문에서 그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칭송하면서 미국은 한(조선)반도에서 적대정책을 추구하지 말고 동북아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중국, 러시아와 함께 손을 잡고 북(조선)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시 정권과 미국의 여론은 북(조선)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거나 ≪북(조선) 위협설≫을 관성적으로 되풀이하는 어두컴컴한 그늘 아래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들어오면서 분위기는 바뀌고 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거기에는 원인이 있다. 이러한 분위기 전환의 요인은 과연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해서 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한다.

첫째,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1월 15일부터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재개하게 되었다. 이번의 사찰은 북(조선)과 국제원자력기구가 1993년 이후 8년만에 처음으로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안전협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주장에 따르면, 북(조선)이 핵안전협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경우 앞으로 북(조선)의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끝마치기까지 3-4년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북(조선)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단을 받아들인 것은, 비록 내외 언론에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부시 정권이 조・미 정치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 것으로 된다.

둘째, 아프가니스탄 침략전쟁이 종결국면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 침략전쟁이 종결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은, 지난해 9월 미국의 심장부를 항공기 테러로 강타당한 엄청난 충격 때문에 반미국가들에 대한 적개심을 안고 있었던 미국의 여론주도층이 이제는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9.11 테러사건≫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미국 여론주도층의 이성을 적개심으로 온통 마비시켰으며, 침략전쟁을 고무・찬양하는 ≪애국주의≫가 미국 사회에 범람하였다. 지난해 5월에 미 국무부가 북(조선)을 여전히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려놓았으므로, 반미테러라는 말만 들어도 적대감으로 광분하게 되었던 미국 사회의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조・미 정치협상을 재개하라는 주장은 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오사마 빈 라덴이 파키스탄으로 도망쳤거나 아니면 병사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미국 언론에 나돌기 시작하고, 알카에다 조직이 재기불능상태로 파괴되었다는 ≪승전보≫가 들리는 요즈음, 미국 여론주도층의 적대감은 누그러지고 있다. 이제는 미국의 여론에서 조・미 정치협상을 재개하라는 주장이 나와도 신경질적인 반응과 격렬한 비난을 받게 될 위험한 분위기가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미국 언론에서 요즈음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을 칭송하고 부시 정권이 조・미 정치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한 흐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셋째, 북(조선)이 2001년 12월 12일 유엔에서 ≪테러자금 조달억제에 관한 국제협약≫과 ≪인질억류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 정식 서명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북(조선)은 반테러 국제협약 12개 가운데 7개 협약에 서명하였다. 2001년 12월 1일부터 4일까지 북(조선)을 방문한 바 있는 스웨덴 특별사절단은 백남순 외무상과 최수헌 외무성 부상을 만난 자리에서 ≪북(조선)이 ≪테러지원국가≫가 아니므로 아직 가입하지 않은 반테러 국제협약 5개에 서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북(조선)이 반테러 국제협약에 서명한 것은 북(조선)을 이른바 ≪테러지원국가≫라고 지목하고 있는 미국의 억지주장을 무력화시키고 조・미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부시 정권이 집권 이후 강하게 밀고 나간 제국주의 군사전략의 두 가지 목표를 이루었다는 사실이다. 부시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일차적인 군사전략목표는 전지구적인 범위의 미사일방어체계를 개발하려는 계획인데, 이것은 부시 정권이 미국 안팎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사일방어체제를 개발하는 실제적인 준비에 착수함으로써 사실상 논란은 마무리되었다.

2002년도 국가정보보고서가 연방 상원의 정보특별

→

위원회에 제출되던 날인 1월 10일 부시는 이른바 ≪깡패국가≫들의 ≪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삼아 개발하게 된 미사일 방어체계를 위하여 모두 3천1백72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예산안에 서명하였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2002년 1월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21세기의 거대한 첨단군사사업이 될 미사일방어체계 개발사업을 주도할 군수기업으로 시카고에 본사를 두고 있는 보잉사(Boeing Co.)와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라키드 마틴사(Lokheed Martin Corp.)를 다음달에 선정할 것이라고 한다.

부시 정권의 미사일방어체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미 국방부는 오산에 주둔하고 있는 제7공군사령부에 전역미사일방어(TMD)기구를 이미 창설하였다는 것이다.

2001년 10월까지 주한미군 부사령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미 육군중장 찰스 헤플바워가 이 기구를 창설하는 작업을 주도하였으며, 한미연합사령부는 전역미사일방어기구와 관련하여 이미 합동훈련을 실시하였다고 한다.

북(조선)의 ≪미사일 위협≫을 들먹이면서 미사일방어체계의 필요성을 떠들었던 부시 정권은 올해에 들어오면서 미사일방어체계 개발사업을 위한 막대한 예산을 따내는 데 성공했으므로 이제는 북(조선)의 ≪미사일 위협≫이라는 구실이 부시 정권에게 더 이상 절실한 요구로 되지 않게 되었다. 그로써 부시 정권이 조・미 정치협상에 나설 수 있는 또 하나의 조건이 마련된 셈이다.

부시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또 다른 군사전략목표는 중앙아시아에 미군을 영구주둔시키는 것이다. 중앙아시아는 아시아대륙의 중앙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이전에는 소련의 세력권 안에 있었으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련의 승계국인 러시아의 영향력이 남아있던 지역이다. 중앙아시아는 미국이 21세기의 세계 지배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잠재적인 위협요인으로 등장하는 3대 강국인 러시아, 중국, 인도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는 전략요충지다. 북쪽으로는 러시아가, 동쪽으로는 중국이, 서쪽으로는 카스피해가, 동남쪽으로는 인도가 자리잡고 있는 전략요충지다. 중앙아시아에는 21세기의 세계 석유산업을 움직일 엄청난 양의 원유가 묻혀있는 카스피해 유전지대가 있으며, 21세기에 유라시아대륙을 관통하는 물류이동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게 될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지나가는 길목에 자리잡고 있다. 부시 정권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중앙아시아에서 이미 쇠퇴하고 있던 러시아의 세력권을 밀어내고 아시아대륙의 한 복판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미국은 ≪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하여 이른바 ≪반테러전쟁≫을 수행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벌였고, 결국 3대 강국의 세력권이 맞서고 있는 전략요충지에 미군을 주둔시켰을 뿐 아니라 카스피해 유전지대를 장악하기 위한 군사적 교두보를 확보한 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네 가지 요인들을 생각해보면, 부시 정권이 조・미 정치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은 일정하게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정적인 문제는 부시 정권에게 과연 조・미 정치협상을 재개하려는 생각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부시 정권이 만일 올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조・미 정치협상의 재개를 외면하면서 대북 적대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경우, 그것은 부시 정권에게 매우 불리한 ≪부메랑 효과≫를 안겨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내년 2003년에 가서도 미국이 북(조선)에 대한 적대정책을 버리지 않을 경우를 예상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3년에 미국과 전면적인 대결을 불사하겠다는 시한부 통첩을 주었기 때문이다. 2003년에 가서 또 다시 조・미 대결상태가 격화되면 북(조선)은 지난 1990년대보다 더욱 강해진 국가역량을 총동원하여 부시 정권을 대결의 벼랑끝으로 밀어버릴 것이며, 결국 부시 정권은 정치적 패배를 맛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부시 정권은 2003년에 다가오게 될 조・미 대결의 숨막히는 위기감과 그 대결에서의 정치적 패배를 일찌감치 피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조・미 정치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자기들에게도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부시가 2월 19일부터 서울, 도쿄, 베이징을 연이어 방문하려는 것은 이러한 판단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할 때, 올해는 부시 정권의 방해책동으로 막혀있었던 조・미 정치협상이 다시 시작되면서 한(조선)반도의 정세가 지각변동을 일으키게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올해 남(한국)의 지방자치제 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남(한국)의 정치정세를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시킬 것이다. 이러한 정세변동을 예고하듯이 북(조선)의 언론은 새해 벽두부터 부시 정권에 대해서 미국의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강한 요구를 들이대고 있다.

2002년의 한(조선)반도 정세는 조・미 정치협상을 재개하는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올해의 마지막날에 우리는 얼마나 달라진 정세 속에서 2003년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끝)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2001년 1월 19일 작성

광 고

대학신입생에게 추천하는 영화 10선

5. ≪독재자≫

찰리 채플린이 감독, 각본, 제작, 1인 2역하였고 ≪모던 타임즈≫와 함께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토메니아국에 힌켈≪채플린≫이라는 독재자가 나타나 유태인을 탄압한다. 1차대전 후 과거 경영하던 이발소를 다시 시작한 한 유태인≪채플린≫은 구속되나 전쟁시 구출해 주었던 슐츠장교의 도움으로 풀려난다. 힌켈은 이웃나라 박테리아국의 독재자 나폴리니와 불가침조약을 맺고 오스텔리히를 침략한다. 휴가중인 힌켈을 대신하여 연단에 오른 이발사는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절절히 호소한다. 이 영화를 만든 찰리 채플린은 에드가 후버 FBI국장으로부터 온갖 박해를 받으며 결국 추방까지 당하지만 역사는 후버를 극우분자, 인간추물로 단죄하고 채플린을 위대한 예술가, 휴머니스트로 높이 평가한다. 채플린의 정치적 진보성과 예술적 천재성이 조화를 이루며 빛을 발하는 세계영화사의 걸작.